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5월 20일(화) 제69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박재우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재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류열사 도청노제 행렬, 당국 불허 방침에 4박 5일 투쟁중

16일, 서울배움터 YS퇴진위한 투쟁선포식 중 부상자 속출

5·18은 류열사가 죽은지 60일되는 날이다. 그러나 그의 시신을 전투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아직도 조선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죽은자까지 억압하는 정권, 한총련의장 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외쳤다. "김영삼정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제공 :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김학영 기자

지난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예정되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3차 총궐기가 광주에 집중된 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총련 3차 총궐기는 그동안 진행되던 1, 2차 총궐기처럼 '한보비리 진상규명,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정권 퇴진'에 '류재을 열사 사인규명과 광주시민과 함께 장례식 사수'를 기치로 17일(토)부터 전국의 대학생들이 광주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16일(금) 각 대학별로 교문앞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17일(토)에는 종묘공원에서 모여 5·18정신을 기리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하였다. 서총련과 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원래 명동성당 안에서 정리집회를 하려 했으나 전투경찰의 명동성당 원천봉쇄로 명동성당 박에서 진행하고 광주 조선대로 향했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경기동부총련)은 전국연합 산하 성남연합과 함께 성남에서 5·18기념대회를 하고 광주 망월동에서 참배한 후 조선대로 모였다.

한총련은 고 류재을군 장례를 조대 정문 앞에서 지내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도청노제를 하려 했으나 계속 전경과 교문앞에서 대치중이며, 19일(토)까지 부상자가 600여명에 달하며 2명의 학생이 실명위기에 있다. ▶관련기사 8면

한편 이보다 앞선 16일(금) 서울배움터에서는 '한보비리 진상규명, 대선자금공개, 5·18학살자 전원처벌과 부패비리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애국외대 5월 투쟁선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각 단대학생회장들은 "정권과의 격돌기인 지금, 투쟁하지 않고선 청년이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5·18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부총학생회연합(동총련) 의장인 최한욱(광운대 총학생회장)군은 "김영삼은 마치 자신이 5월정신을 계승한 양 내세우지만 전·노 사면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민중을 탄압하는 김영삼은 절대 자격이 없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5·18은 계속된다"고 5월정신의 계승을 역설했다. 투쟁선포식 후 정문에서는 교문밖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투경찰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 같은 '교문투쟁'은 서울배움터에서 95년 5·18투쟁이후 2년만에 벌어진 것으로, 50여명의 선봉대들이 5개 중대의 병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또 집회후 운동장에 널린 최루탄을 치우던 한 학생은 불발탄이 터지는 바람에 안구부상을 입었다.

허윤숙·박윤정 기자

YS퇴진 위한 양배움터 대동제 열려

서울 19~23, 용인 21~23일까지

서울배움터에서는 19일(월)부터 23일(금), 용인배움터에서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대동제가 열린다.

어제(19일) 시작된 서울배움터의 대동제가 '우리는 오래 침묵하지 않는다'는 기치로 진행된다. 시기마다 그때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왔던 대동제가 이번에는 김영삼정권 퇴진을 축으로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 정치적 소수자들과의 연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향하여'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일(월)에 이미 개막제 "우리는 오래 침묵하지 않는다"가 이스크라등 락밴드의 공연을 중심으로 노천극장에서 진행됐고 20일(화)은 동양어대 학생회에서 주최한 '동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4시에, 북부노동자회의 개정된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전망에 관한 강연회 및 토론회인 '폴리토피아'가, 21일(수)은 '문화적 이단자들과의 대화'가 황신혜밴드와 허벅지밴드, 22일(목)에는 외대노래창작단에서 준비한 '통일노래한마당'이, 23일(금)에는 모든 문예패들이 꾸미게 되는 폐막제가 열릴 것이다.

이 밖에도 동성에 영화제가 19(월), 20(화) 양일간 개최되고 독립영화제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릴 것이다. 또 각종 거리전이 대동제의 마지막까지 진행될 것이다.

한편, 용인배움터 대동제는 '겨레사랑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동포를 돕는 것이 아닌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가로막는 YS를 퇴진시키고 경제봉쇄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을 거부하자는 기치인 '겨레사랑 실천운동'을 내걸고 있다.

21일(수)에는 개막식, 22일(목)은 왕산 목청·율동 뽐내기 한마당, 23일(금)에는 폐막식 및 북한동포돕기 겨레사랑 왕산인 문화제가 진행되고 이 삼일간 예비역족구대회가 진행되고 폐막식날에 시상을 한다.

상설마당으로는 윷놀이나 투구같은 것으로 구성된 민속놀이 한마당, 동아리의 시연을 위주로 꾸며지는 거리문화 한마당이 있다.

또한 93년도에 의문사를 당한 고 김용덕군의 시비를 세울 예정이며 선전거리에서는 북한바로알기·한총련·반미의 거리가 차량을 통제시킨 가운데 진행된다.

서윤경 기자

빈의자 — 대선자금과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풀다보면 자꾸만 얽힌 곳이 나온다. 차분히 앉아서 하나를 풀면 이제 됐거니 하지만 곧 또다른 매듭이 기다리고 있다. 자꾸 작은 매듭만 풀기 때문이다.

매듭을 제대로 빠른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중심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매듭을 풀었을 때만 작은 매듭도 술술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한보 비리라는 매듭을 푸는 과정은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보 비리가 파헤쳐 지는 과정에서 소위 '깃털'들만 수사하고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보비리라는 매듭을 풀기 위해 청문회를 했지만 결국 매듭은 실의 다른 부분과 얽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소위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을 더이상 믿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냥 웃고 넘길 얘기는 아닌 듯 하다.

▲'김현철'이라는 매듭을 풀기 위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김현철을 구속시켰다.

그러나 '김현철'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를 구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와 김현철의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매듭의 중심고리는 한보비리와 김현철이 아닌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인 것이다.

▲사이사이에 돈이 낀 얽힌 실타래가 무소불위의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풀기 어렵다고 해도 이것을 풀지 못한 채 그대로 둔다면, 대선자금으로 얼룩진 김영삼정권의 실타래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더더욱 얽혀 다시는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며 이 엉킴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결국 실타래는 실타래로 끝날 뿐, 풀어서 쓸 수 있는 '실'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허윤숙

지 면 안 내

서울 총학, 예비비 지급문제 ……………………3면
총학의 자치활동지원 기금의 시행된 후 나온 문제점을 지적한다

배움터에서 코카콜라가 사라진다 ……………………6면
앞으로 학내에서 코카콜라 자판기를 전면 없앨 생각이라는데…

특집기획 – 북한바로알기 ……………………9면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을 알아본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돈만 있으면 대학가는 YS교육정책 ……………………10면
'기여입학제'는 안된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알 림

류열사 장례 및 한총련 총궐기 취재 관계로 하루 늦은 20일(화) 발행합니다

5기 한총련 출범식 광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00만이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5기 한총련이 만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변화의 주체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승만 천미독재 정권을 4·19로 퇴장시킨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도
전두환 군부독재의 항복을 받아낸 6월항쟁도
'힘'에 의한 역사를 바꾼 것
이땅 청년의 '힘' 입니다.
97년 문민독재를 물리칠 수 있는 청년의 '힘'을 보여줍시다.
100만이 하나되는 한총련
한총련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 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김영삼 정권에 접어들어 61번째 장례식이다.

지난 16일(금) 조선대에서는 지난 3월 20일 '폭력정권 부패정권 김영삼 정권 퇴진하라'를 외치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숨진 고 류재을 군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 의하면 류군의 장례식이 현정권 하에 치러지는 열사의 장례식 중 61번째라고 한다. 김영삼 정권은 수서비리, 삼풍·성수대교 붕괴, 경제위기, 대선자금, 한보사태 이외에도 61명의 열사를 탄생시킨 것까지, 다방면으로 나라를 붕괴시켜 간 초유의 정권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한편 사망한 지 58일만에 치러진 이날 장례식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16일에 조대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도청에서 노제를 지내고 망월동 묘역에 안장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지됐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반드시 도청노제와 망월동 묘지 안장'을 성사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19일) 조대정문에서는 학생과 전투경찰 간에 마찰이 4일째 계속되고 있다. 마찰 과정에서 600여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조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밀려드는 학생들로 인해 이후 부상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처지라고 한다. 부상자들의 대부분이 직격탄에 맞거나(직격탄에 눈을 맞아 안구파열, 실명위기인 학생이 2명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맞은 것이어서 부상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직격탄에 맞았다는 사실은 전경이 직격탄 발사 준칙(각도 45도 이상)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말하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함은 학생들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참고로 작년 8월 연대항쟁 당시 경찰은 시위진압에 총기사용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즉각 취소했었다).

"장례식 한다는데 왜 말려! 지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한 시민의 말처럼 현정권은 분명 '찔리는 게' 많다. 한보사태를 필연적으로 불러왔던 '대선자금'이 그것이다. 그러나 '찔리는 게' 있으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뭉게는 일이 선행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는 게 두려운 잘못을 했다면 사과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지 왜 감추려고만 하는가. 뭐가 그리 두려운가.

북수해동포돕기의 이면

얼마 전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씨를 비롯한 유명한 음악가들이 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북한 수해돕기 음악회를 열릴 예정었으나 이 음악회는 정부의 압력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 15일(목)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개최하는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위한 문화제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문화제도 전경과 백골단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

정부는 북한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로만 되는 단일창구를 주장했었다. 그러다 올해 4월 갑자기 민간차원의 북식량지원을 허용하였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종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노동조합등 각계각층에서 북한동포돕기 쌀모으기나 모금이 진행되었다.

재작년 북한이 수해를 입었을 때부터 한총련과 전국연합은 북한수해돕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총련과 전국연합의 노력은 '북한에 군량미'를 준다는 것으로 오도되어 결국 국민들과 모은 쌀은 북한에 보내지지 않았다.

전국민적인 북한수해동포돕기운동은 국민들에게 민족애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정부가 일간지와 각 방송국에 발표한 북한의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고 이를 보고 들은 국민들은 북한동포가 적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한보비리와 관련된 김현철씨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잠시 사그라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2년동안 연속적인 수해를 당해 식량난이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갑자기 정부는 북한의 수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수해돕기운동이 민간차원에서 허용되고 신문·방송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시점은 한보비리와 관련해 김현철씨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던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공영방송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자 정부는 이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음악회와 문화제를 막음으로써 북한수해동포돕기운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춥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외대학보)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하이에나 제도언론은 반성하라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게 되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현철씨의 비리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94년도의 현철씨 관련 보도를 상기해 보겠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은 그가 무자격 한약업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타 신문을 보니 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부정한 돈을 억 단위로 받은 의혹이 짙다면 큰 뉴스거리인데 관련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참 뒤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다. 원래 특종은 세계일보에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기사화되는 것이 포기되어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게 된 것이다. 상황적 근거가 확실하면 의혹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은 이런 책임을 져 버렸다. 당시는 문민정부의 위세가 높아서 언론이 몸을 사리는 때였다. 신문사와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행해졌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발표되지 않고 ABC 신문 부수 공개 제도의 도입이 과제가 되었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기회주의를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다. 80년 군부집권 당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그렇게 강변하던 언론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군사정권의 부당성과 비리를 맹공하였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자 노태우 정권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추궁하였다. 그러나 과거 정당한 것으로 강변했던 것에 대해 돌연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와 관련해 국민에 대해 해명이나 반성, 사과를 한 언론은 없다. 과거 글을 썼던 사람 상당수가 언론사에 책임자로 남아있는데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권력의 압제속에서 희생자이고 피해자였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정권의 온전한 유지가 불가능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정권의 힘과 기세가 등등할때 온순하다가 그렇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몰려가 공격했다. 외국 언론은 이런 우리 언론에게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붙였다.

언론은 현철씨를 성역으로 만들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관했다.

이제 언론은 현철씨를 비판하는 데만 관심을 쏟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본연의 임무를 했다면 이런 무정부 상태의 혼란한 시국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태국(상경계열 1)

스쿨버스 문제 많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교통 수단-그것은 바로 버스이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것이 스쿨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쿨 버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나열해 본다.

첫째는 스쿨 버스의 요금이다. 지금 스쿨 버스의 요금은 학교로 오는 것이 1200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1000원이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버스의 요금보다 많은 액수이다. 스쿨 버스, 말 그대로 학교 버스의 요금이 왜 일반 버스 요금보다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는 스쿨 버스의 노선이다. 서울로 왕복하는 스쿨 버스는 아침에 학교로 가는 차는 사당에서만 있고 오후에 집으로 오는 차는 분당, 양재를 거쳐 강남으로 가는 노선뿐이다. 이는 이 지역 외에 사는 학생들이 스쿨 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한다.

셋째는 스쿨 버스의 시간대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지막 수업은 5시 20분. 그러나 스쿨 버스는 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끊길 때가 많다. 따라서 5시 20분이나 그 이후에 수업이 끝나는 학생들이 스쿨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수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넷째는 버스 상태의 불량이다. 좌석은 떨어져 너덜거리고 차가 달릴 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옆 사람의 말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또 버스 맨 뒤의 유리창은 금이 가 있는데도 그 위에 달랑 테이프 하나만 붙여 놓았을 뿐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이 깨끗하게 쓰지 않은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스쿨 버스가 과연 그 구실을 얼마 만큼이나 해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위주영(서학·독일어 2)

쓰레기 하나에도 언행일치를

저녁 늦게까지 과방에 모여 잡담을 하든, 공부를 하든, 대화를 했건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는 일이 자주 있었다. 신문지를 깔고 맛있게 먹은 다음, 찌꺼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그냥 둘둘 말아 까만 비닐을 씌운 쓰레기통에 쑤셔 넣는다.

어쩌다 아침 일찍 과방에 나오면, 쓰레기를 치우시는 아저씨의 '말이 되는' 꾸중을 듣기도 한다. 학생들이 학교 와서 술만 마셔서 되겠냐는...

무거운 쓰레기 봉지가 묶인 채로 복도에 줄을 서있다. 낑낑대며 아래층 소각장에 가져가 보면 아주머니께서 장갑을 끼고 일일이 봉투를 뜯어 '재'분리를 하고 계신다.

학교 내에서 집회가 열린 뒤 노천 잔디발 등에서 뒤풀이를 하고 난 다음날이면 교정은 거의 쓰레기통을 방불케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고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려 할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생각의 올곧음과 논리이지만 반드시 생각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위대한 사상이 참다운 실천으로 옮아가야 한다면 생활의 사소한 한가지가 바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방 하나 청소하지 못하고, 열띤 토론 뒤의 비나리가 쓰레기 더미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 주겠는가. 청소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경 공해와 쓰레기의 심각한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정말 심각하게 읽고서 구겨 버리지 않고 곱게 접어 버리는 조그마한 정성, 우리가 먹은 술병 우리가 처리하고, 즐거웠던 술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의 여유만 가진다면,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바가 훨씬 부드럽게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은산(동양·터키어2)

알 림

지난 주 (691호) 춥산의 소리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하라'의 필자로 나온 김세영(서양·영어1)양은 실제 필자가 아니며 청탁과정상의 잘못으로 허락없이 김세영양의 이름을 차용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당

모두 하나되는 대동제로…

본인은 요즈음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서반아어과 55학번이다. 그러니까 외대 전체적으로 본다면 2회이고, 서반아어과로 본다면 1회 입학생이 된다. 본인 역시 학창 시절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 사람이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후배 학생들이 연출해내는 대학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격세지감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낀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는 뚜렷한 무언가를 보란듯이 해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인에게는 서반아어과 회화 써클의 일원으로 서반아어 회화에 열을 올리면서 동료들과 끈끈한 정을 키웠던 것이 학창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의 하나이다. 가끔가다 열리는 강연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낙이요,보람이었다. 강연회가 끝나면 삼삼오오 몰려 막걸리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토론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보냈건만 우리 세대는 캠퍼스에서 우정을 다지며 고유한 대학문화를 가꾸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본인은 서반아어과 교수가 된 후 1969년부터 20년간을 우리 외대의 KUSA 지도 교수를 맡았었다. 본인이 사실상의 대학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사랑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대학생 혹은 대학문화에 대한 끈끈한 그 어떤 느낌을 모르고 지냈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경이리라 여겨진다. 대학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축제는 과거에는 학생들과 교수가 일체가 되어 함께 즐기는 행사였다면 오늘날의 축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몇 년전만해도 거의 모든 동아리나 각 학과에서 잔디밭에 조그마한 천막을 치고 먹거리 판을 차려 놓고는 그야말고 대사업(?)을 벌렸다. 그리고는 고객 중의 고객인 우리 선생들을 찾아와 양팔을 끌고 자기들의 사업장으로 데려갔다. 원을 그리며 동그렇게 앉아 빈대떡과 막걸리를 마시며 그들과 웃고 놀며 토론하는 가운데 잔디밭은 어느새 야외수업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축제는 학생과 선생이 스스럼없이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총학생회가 온갖 힘을 다하여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대단한 규모와 짜임새에 놀라움을 금할 바 없다. 진정한 대학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총학생회의 앙칼진 결의에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이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 열리는 '거리문화 축제'에서는 외국어대학교에서만이 할 수 있는 원어 노래 및 각국의 춤이 외대 교정을 화려하게 수 놓을 것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외대의 대동제는 타대학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 만이 우리 학교에서도 보여진다면 이는 아이디어의 부족이요, 또한 이 일을 꾸민 총학생회에게 모두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을 거라는 노파심을 갖게 된다.

끝으로 그리고 수고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우리 교직원들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이번 기회에 1년동안의 피로함을 불사르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본인도 학생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구수한 막걸리라도 한잔 마셔볼까 한다.

우 덕 룡
(서울 부총장, 서반아어과 교수)

백지 대자보

식민지백성들이 본국의 국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국노

주제 : 성조기, USA 패션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신발 깔창 무늬로는 죽이겠다!!!
-BA91

태극기. KOREA패션으로 맞서자.
-애국하는 IC96

대학이 대학다운 빛깔을 잃고 있잖아, 벌써부터.
-대학인

이것이 세계화일까?
-궁금이

나만은 입지 않겠다는 생각은 확고해.
-나는 나

아직가지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나약한 지성인들의 모습일 뿐이다.
-나약하지 않은 지성인 TH96

조국의 통일과 민족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이럴수가…
-걱정이

POSCO 메시지 면학편

학창시절이란
젊음에 주어진 참된 인생

젊음이 두번 다시 오지 않듯
학창시절도 두번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한부인생과도 같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보다 알차게 보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1분 1초라도 아껴서 땀을 흘릴때
그 열매는 알알이 영글어갑니다.

힘써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수많은 밤을 책과 씨름함으로써
부디 일취월장하십시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총학생회 자치활동지원비 지급문제

지원의 사각지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벗어나야

단위학생회 강화하기위한 논의체계 재정비절실

서울배움터 31대 총학생회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치활동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자치활동지원은 매달 총학생회로 지급되는 자치회비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100여만원의 예비비를 각 소모임의 행사에 총학생회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회 단위가 학생회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고민속에서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총학생회 기조실장 박형진(서양·영어 4)군의 말처럼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첫 해의 미숙함으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를 극복할 때 더 완전해 질 수 있다.

일단은, 예비비 지급의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지원의 기준은 ▶자원이 열악한 곳 ▶활동의 목표가 명확한 행사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3월 결산보고를 보면, 자치활동지원을 받은 9개 행사 중 '손소리샘'과 '100자 콘서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대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모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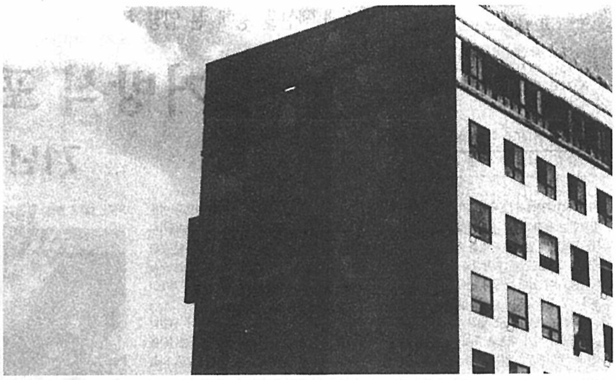
이렇게 단대·동연 체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임과 그렇지 못한 곳이 똑같이 1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중지원을 받는 행사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이 열악한 곳'에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도 무색해져 버린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논의체계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논의체계는 지급문제가 각 단대장들이 참석하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총학생회가 직접 대자보를 붙여 신청을 받고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단대·동연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위에서 지적한 '불평등한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외에도, 학생회 체계의 허리단위인 단대. 동연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장 이정환(서양·불어 4)군은 "총학생회 사업이 단위학생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학생회가 왜 건설됐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며 "개인의 힘으로 풀 수 없고 총학생회가 일일이 해결할수도 없는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푸는 곳이 단대학생회"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예비비 지급문제가 중운위에서 논의된 것은 3월에 한번이었고 그나마 논의가 아닌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형식 이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런 논의의 부족속에서 외대노래창작단, 외대풍물패연합, 언론협의회 등 갈래조직에 대한 일상적 지원 부족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확대운영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특정행사가 있을 때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결국 이상의 모든 문제는 더욱 풍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단대·동연이 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원기준이나 지원단위책정, 지원액까지도 중운위에서 충분히 재논의할 때 당초 예비비지급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현재 일고있는 잡음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윤정 기자



새로 지어진 교수 연구동. 여기에 제일은행 외대지점의 승격축하 플래카드가 건물의 한 부분을 크게 찾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된 건물구조는 외부건물로 오인될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상당정도 들어간 이 건물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완공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플랭카드를 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김학영 기자

서울, 도서관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도서관 문제점은 나에게 맡겨라'

모든 외대인의 관심과 지지 필요

작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서울 배움터도서관 자치위원회(이하 도자위)가 중간 고사가 끝난 26일(토) 위원장 이경수(사회·신방 4)군을 비롯해 총 4명으로 꾸려졌다.

도자위는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복지) 산하에서 식당자치위원회(이하 식자위)의 위상과 같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개선·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단위이다. 대표적인 일은 시험 기간중 △지정좌석표 재분 △대자보 관리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환경 개선 △공간 배치와 같은 큰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도자위를 담당했던 위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다.

현재 구성된 도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제시 되었던 예산의 투명성 보장이나 실제적 영향력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도자위의 예산은 복지장학금으로 충당되었다. 실질적으로 도자위를 담당하던 복지위원회에서는 개인당 40만원으로 총 16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도자위 예산으로 쓰도록 했으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제부터는 이 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해 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이 도자위가 대학당국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다. 도서관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학당국측의 개선의지가 근본적으로 발판이 되어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도자위의 힘만으로 대학당국측을 움직여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도자위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합의가 바탕이 되어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자위가 개방적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측도 열린 자세로 도서관 발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식자위의 경우는 후생과와 협의를 통해 식당의 내부 장식이나 식당 개선 등을 하고 있다.

복지 위원장 김형동(서양 ·영어 4)군은 "도자위를 꾸리는데 가장 힘이 들었던 점은 주체들을 세워내는 일이다"며 "도자위가 필요는 하지만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어렵게 구성된 도자위가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외대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동훈 기자

후생관 아라코 식당을 진단한다

"학생의 입장에 서라"

용인 총학, 아라코 식당에 요구안 제시

지난 15일(목)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후생관) 학생식당 입구에는 18대 총학생회의 아라코(ARAKOR) 식당에 대한 요구안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다. 학생들의 학내 복지시설이나 식당에 대한 불만이 특히나 많은 이 시점에서 아라코 식당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과 아라코 식당 용인배움터 지점장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지난 15일(목)에 후생관 학생식당에 붙은 대자보에 따르면 '그동안 합의사항을 지켜오지 않은 아라코 식당에 대해 총학생회는 3가지를 요구한다. 1. 식당 전반에 대해 아라코의 책임자와 학생회 대표가 식당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손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빠른 시간내에 학내식당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3. 앞으로 적극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후 아라코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일어서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총학생회는 "현재 아라코 식당은 음식질이 낮고 처음에 합의했던 밥과 김치의 자율배식이 안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기숙사 식권이 1,500원으로 올랐고 음식 가격은 1,300원 또는 분식의 경우 천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코 식당에서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1,500원짜리 기숙사 식권으로 1,300원짜리 밥을 먹거나 천원짜리 분식을 먹을 때 남는 돈을 거슬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라코 식당 지점장 성상모씨는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우리와 먼저 얘기했어야 되지 않는냐"며 "우리도 '소리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라코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또 성상모씨는 "쌀의 경우 교수식당, 기숙사식당, 학생식당이 모두 최상급이다. 그리고 밥과 김치를 자율배식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며 학생회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에서는 "작년에 후생관식당 공개입찰을 할 당시의 사업계획서 상에는 밥과 김치를 자율배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카페테리아의 경우 밥을 따로 팔고 있다. 이것은 계약위반이나 다름없다. 또한 기숙사 식권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아라코 식당은 학내에 있다. 그렇다면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학내구성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아라코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길.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식당이 되는 것이다.

명재권 기자

외대발전 캠페인 2

작은 힘들이 모여 큰 외대를 만듭니다

총장·총동문회장 초대 메세지

외대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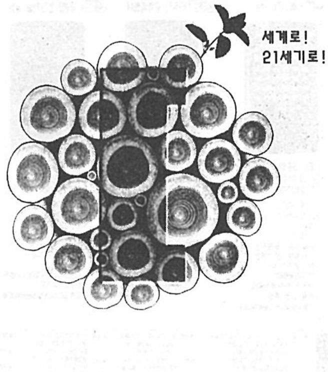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우리 외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와 함께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외대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을 설치하여 전세계로부터 우수한 대학원생 60명을 선발하였고, 이미 그 명성은 세계에 떨치고 있는 통역대학원과 더불어 국제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지역에 관한 정보, 연구 및 연수를 전담할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현재 8천여평 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한 이와같은 교운상승기를 제2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대가 세계적인 대학의 대열에 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 좋은 시설, 더 훌륭한 교수진, 더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더욱 충실한 교과내용이 가능할 때에만 비로소 외대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대가 국내의 유수대학에 하나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왔던 오늘까지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제2의 도약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국적은 바꿀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대의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모임에 참여합시다.

6월 3일(화)은 모교 「제2도약을 위한 만남」의 날!



■안내 및 연락처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
외대발전 캠페인 본부 Tel. 02)961-4402, 4405 (直) 02)3295-5701~2 Fax. 02)3295-570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발전캠페인본부

글 싣는 순서

1. 56년 대선
2. 63년 대선
3. 71년 대선
4. 87년 대선
5. 92년 대선
6. 총괄 - 97년 대선 전망

역대 대선을 통해 본 일당 독재 여당사

선거방식 포기, 유신체제로의 이행 불가피

71년 대선, 지역감정 표출, 용공조작 등장

1967년 6대대선에서 초유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박정희는 통합야당인 신민당의 윤보선에 무려 115만 표차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승리의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 탓에 일반 국민의 관심은 누가 여권의 후계자로 등장할지에 대해 모아졌다. 대선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공화당 일부에서는 김종필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는 세력들이 '국민복지회'라는 모임을 은밀히 결성하는 등 때 이른 권력누수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1969년에 접어들면서, 권력의 화신인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지를 천명하였다. 1969년의 3선개헌추진은 한일협정반대시위 이후 최대의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의원들은 개헌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였고, 국회밖에서는 연일 수천명의 학생들이 개헌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30분에 3선개헌안은 공화당 의원만으로 국회별관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40대 기수론의 등장

국민적 저항과 공화당내의 반발을 위협과 회유로 무마하면서 3선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자 이제 관심의 촛점은 박정희와 다음 선거에서 맞설 야당의 후보에 집중되었다. 1969년 11월 8일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 당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40대기수론'을 제창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신민당 부총재였던 유진산은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구상유치의 아이들이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격하하였다.

그러나, 40대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이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지명전에 나설 것을 공식선언하면서 40대기수론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아 나갔다. 40대 기수론이 대세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야당 대통령후보의 노령과 병약이 패배의 일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그간의 상황이 깔려 있었다.

유진산 당수의 추천을 받은 김영삼과 비주류의 지지에 기대를 건 김대중간의 1971년의 대통령후보경선은 한국정치사에서 초유의 현상이었다. 과거에는 보스 몇몇이 회담하여 대통령후보자를 결정하였던 것이 그간 야당의 관례였다. 2차투표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결과 1차투표에서 뒤졌던 김대중은 이철승과 이재형의 지지를 얻어 48표차로 김영삼에 역전하였다. 김영삼은 패배를 시인하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연설을 함으로써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후보의 선출과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야당의 경선과정은 권력연장을 위해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였던 여당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가 되었다. 전례없는 야당의 신선한 모습에 국민들은 기대를 걸 수 있었고, 이러한 기대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으로 하여금 선전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맞붙었던 김대중은 박정권의 성장위주 정책을 비판하고 대중경제론등의 신선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94만표의 차이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중단없는 전진과 대중경제론

1971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정치적 안정속의 중단없는 전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대통령 다시 뽑아 번영하자'를 구호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민주주의의 복원'과 '공정한 분배'를 약속하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치자'는 구호로 대응하였다.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박정희가 언제까지 집권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특히, 김대중이 이번 선거에서 박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되면 그는 영구집권을 위해 총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갔다.

자신의 영구집권에 대한 우려가 감표요인으로 작용하자 박정희는 서울의 장충단 공원유세에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호소하면서 이번 임기 이후에는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임을 약속하였다. 물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의 약속은 불과 1년뒤에 영구집권을 보장하였던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새까만 거짓말이 확인되었다.

박정희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자 김대중의 새로운 공약과 웅변술에 기반한 야당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김대중은 향토예비군제도의 폐지와 교련폐지등 젊은 층을 의식한 당시로서는 신선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박정권의 성장위주정책이 노동자와 농민의 복지를 무시하였고 빈부의 격차를 증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치유할 방법으로 자신의 대중민주주의와 대중경제론을 주창하였다.

지역감정의 본격적 표출

선거 결과 박정희는 김대중을 94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온갖 금권과 관권을 동원하여 얻은 이같은 결과는 무척 초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상황에서 성장을 담보로 박정권에 주어졌던 국민대중의 지지가 철회되고 광범위한 민심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감정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박정희 후보는 경남북에서 75%의 표를 얻었던 반면에 김대중 후보는 전남북에서 65%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사실 박정희와 김대중의 94만표는 경상도에서 벌어진 두 후보간의 표차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60년대 내내 박정권은 엘리트의 충원과 자본투자에 있어서 영남우대정책을 관철하였고,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은 선거공간을 통해 확산되었다. 유세과정에서 "서울 가면 구두닦이나 식모는 모두 전라도 출신이며, 남산에서 돌을 던져 차가 맞으면 경상도요, 사람이 맞으면 전라도"라거나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김대중이 표가 나오면 안된다.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대통령 안찍는 자는 미친 놈이다."라는 식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거전략이 활용되었다.

야당후보에 대한 용공조작

71년 대선에서 나타난 두번째 특징은 후보자를 둘러싼 이념시비가 불거져나왔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김대중의 예비군제도의 폐지와 교련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 남북의 심각한 긴장상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공격하였다. 또한 김대중은 선거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해 미·일·중·소 4강에 의한 안전보장론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박정희는 사상적 경력이 의심스러운 김대중의 제안은 현실을 무시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박정희 집권 내내 선거는 정권연장을 꾀하는 권위주의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다. 71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은 대통령선거의 여세를 몰아 이전의 44석을 훨씬 능가하는 89석을 얻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저항하는 재야, 학생, 지식인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1971년의 양대선거는 박정희로 하여금 선거라는 민주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권의 재생산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박정희로 하여금 선거라는 민주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권의 재생산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박정희의 선택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가능케할 유신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내는 것이었다. 이제 대통령은 지역유지들의 모임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 모여서 선출하게 되었고, 박정희 자신은 국회의원의 삼분의 일을 직접 임명하는 최대 유권자가 되었다.

정 상 호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80년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의의

5·18, 민중운동의 질적 전환·6월 항쟁으로 확대 강화

71년 대선 이후 박정희 정권이 유사독재체제로 치달으면서 그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79년 여름을 넘기며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 움직임이 터져 나올 무렵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는 곧바로 신군부가 12·12쿠테타를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로써 우리 민중은 더욱 깊은 질곡의 역사 속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80년 5월 광주에서의 민중항쟁은 그 엄청난 피의 대가로 이 암흑의 시기 한줄기 빛으로 87년 6월 전 민중적 항쟁의 모태가 되면서 우리 민족사의 질적 전환점이 된다. 이러한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결과를 알아보자.

편집자

10.26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 미국과 군부내 유신잔당은 한편으로는 최규하, 신현확 등을 앞세워 구속자 석방, 언론통제의 완화, 유신헌법 철폐와 새 헌법제정 및 민주정부 구성들을 내용으로하는 정치일정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2.12쿠데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취임, 노태우의 수도경비사령관 취임 등을 추진하였다. 즉 미국과 전두환 일파가 자신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라는 타협적 방식을 제시하여 보수적 정치인의 일부를 회유함으로써 민중에게는 마치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처럼 기만하면서 실권을 계속 장악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반동쿠테타를 통한 전면적 군사통치라는 방식을 택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12·12와 5·17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5.17군사쿠데타는 애국민주세력과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투쟁을 중지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실시되었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체포, 투옥, 수배되고 학원이 폐쇄, 점령되고 시내 곳곳에 계엄군이 증강 진주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국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불가능할 듯이 보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18일 아침을 맞았다.

전남대, 조선대와 광주교대 정문앞에서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잡히기만 하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학생들이 도청앞에서 "휴교령 철회하라! 계엄군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광주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총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나온 광주의 시위는 신군부에게 총칼의 위협앞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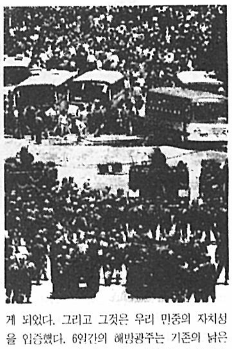
한걸음 더 나아가 광주에서의 시위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여 군부쿠데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군부는 즉각 7공수여단을 광주시내 한복판에 투입했고 이로부터 공수부대에 의한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선도적 역할에 의해 시작된 5·18민중항쟁은 20일 오후 1시 정각 도청앞에 모인 20만의 광주시민들을 향한 사격이 시작되면서 항쟁의 주체세력이 학생에서 기층 민중들에게로 전환되면서 투쟁의 형식도 정치투쟁의 최고 형태라 할 수 있는 무장봉기로 이어지게 된다.

무장시위대의 출현은 광주시민들에게는 벅찬 감격이었지만 신군부에게는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전두환 일파는 일단 군부대를 철수시킨 뒤 광주를 극도의 고립속으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에 무력을 집중하여 항쟁을 분쇄시키기로 방침을 정한다.

결과적으로 5.18항쟁은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반민족적인 군부집단의 권력장악에 이용되었다. 또한 수백, 수천의 뜨거운 피는 남도의 산하를 덮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5공화국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왜곡되고 은폐된 형태로 잔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5.18은 실패하였는가?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 80년 5월항쟁은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확고하게 부상시킴으로써 민중의 역동성과 그들이 역사의 주인임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또한 총칼의 위협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던 우리 민중의 지겨운 굴종의 시대를 엄청난 피흘림의 대가로 마감하



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중의 자치성을 입증했다. 6일간의 해방광주는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진 속에서 민중 자신들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무엇보다 광주민중항쟁은 그 과정에 개입한 미국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우리 민중속에 세찬 반미 반독재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김정희 기자

해외통신 - 일본의 군사대국화

'황군' 부활 꿈꾸는 일본

점진적인 방위력 증강… 군사비지출 세계 3위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일본 국수주의의 성지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방위정책의 전제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의 전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평화헌법 제9조는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전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정부의 패배로 인한 냉전구도의 확대,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의 재무장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1950년 일본 국내의 치안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고, 이는 1952년 보안청에 편입되어 보안대로 재편되었다. 1951년 독립을 회복한 일본은 오랜 국내의 논쟁을 거쳐 1954년 7월 직접침략에 대응할 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청과 자위대를 발족하였다.

자위대의 설치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라는 엄연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존재와 평화헌법 제9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 일본 방위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의 하나이다. 실제 일본의 역대 정부는 '모든 주권국가는 자위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자위력 보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다. 또한 1958년 이래의 일본의 지속적인 군비증강은 이와 같은 헌법의 자위권에 대한 확대해석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후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체결되었는데, 이는 1960년 1월 개정되어 현행의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현행 미일안보조약에는 '미일 공동작전 조항'(제5조)과 미군이 일본의 안전이 아니라 '극동의 안전을 위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극동조항'(제6조)이 추가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동맹조약으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이 조약에서는 일본의 군비증강을 의미지우고(제3조) 양국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제2조)을 조약상의 의무로 하고 있다.

점증주의, 일본방위정책

일본의 방위정책은 평화주의의 이상을 내건 헌법을 대전제로 1957년에 채택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UN 활동의 지지 등 4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국력과 국정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제3항)는 규정이다. 이러한 점증주의는 1958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위력 증강계획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더 큰 방위노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과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방위제한을 요구하는 야당 등 국내세력의 압력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점증적인 정책변화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1976년의 국가방위계획대강과 방위비에 대한 GNP의 1%원칙, 1991년 7월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5원칙과 1992년 6월 자위대의 PKO 참여에 대한 국회의 사전승인조항 등으로 사전승인조항 등으로 정책제한을 확립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방위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혼선 빚어온 일본방위정책

1957년 5월에는 채택된 '국방의 기본방침'을 통해 일본에 대한 직·간접침략이 있을 때에는 일본의 영토·해상·영공만을 방어한다는 전투방위의 개념이 성립됨으로써 일본의 자위권이 내실화되었고 점진적 방위력증강의 기틀이 되었다. 이를 통해 1958년부터 1960년도까지 3년간 실시된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 뒤이어 제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 그리고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 등 약20년에 걸쳐서 4차례의 군비력증강계획이 착실히 수행되어 1976년 계획의 종료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시기까지의 일본군사력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유동적인 자위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후 일본의 국가형태의 애매성은 군사독트린에 애매성의 결과를 낳아, 경제 최우선의 정책 아래 미국의 헤게모니(핵우산)하에서 일본의 안전을 찾기 위한 비무장의 '평화헌법' 노선, 미일안보 중시로 인한 미국의 군사와 결합을 주장하는 노선, 전후 일본제국의 계승성을 주장하는 노선 등의 대립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독트린은 ①비무장 중립, ②자유세계 방위, ③독자 중무장 이라는 상호 모순하는 군사원리로 대립하게 되었고, 어떠한 노선도 배타적인 독트린으로서 선택되지 못하였다.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이 끝난 직후 1976년 10월 새로운 방위력 증강계획의 지침으로 책정된 것이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방위대강으로 약칭)이다. 이는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에 의해 방위력의 양적규모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질적으로 충실화시키려는 계획이며, 실제 전투능력을 갖춘 자위대를 만드려는 생각이 채용되었다. 방위대강에는 일본이 평시에 보유해야 할 군사력의 수준, 방위에 필요한 지침, 방위력의 유지와 운용, 주요장비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말 소련군의 현저한 증강과 활발한 활동으로 극동의 정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상한선을 설정한 방위대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978년부터 '중기업무견적'이라는 내부계획을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해 왔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구상으로 1985년 9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중기방으로 약칭)을 결정하였다.

이에 1987년 1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는 GNP 1%의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은 1958년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이 실시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일본은 미국과 소련에 다음가는 제3위의 군사비지출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윤 홍 석
〈명지대 정치학과 강사〉

다국적기업이란 무엇인가?

독점자본의 유령이 전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지난 달 초 한국 코카콜라사가 범양식품(주)에 콜라원액공급을 전면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카콜라측은 기존에는 범양식품에 원액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만을 가져갔으나 이제는 매출에 따른 판매이익금도 직접 챙기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러한 범양식품의 사례는 코카콜라사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유형화된 행동양식이다. 최근 시장개방의 물결과 함께 그 제국주의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출연할 때부터 세계시장을 필요로 한다. 독점적 초과이윤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집적한 독점자본은 더 이상 국내에서 독점이윤율을 실현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자본의 해외수출로 나아가게 된다.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본의 해외수출의 직접적인 투자형태인 다국적 기업을 초국적 기업과 구별하여 '주식 소유의 다국적화'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약화시키려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글에서 다국적 기업이란 일국의 국민경제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이 다수 주(식) 소유 자본가가 소속해 있는 본국의 모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국제적 독점체라고 의미를 규정 짓도록 하자.

코카콜라, 다국적기업 대표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문제로 코카콜라와 암웨이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암웨이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수탈보다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다단계 판매방식이 더 부각됨으로 여기서는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질적 성격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 한국 코카콜라사가 범양식품(주)에 콜라원액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코카콜라사가 금년초 우성식품과 호남식품을 인수한 뒤, 범양식품에 대한 인수를 추진, 공장 및 영업권을 7천만달러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범양식품은 '원액공급을 재계약하거나 2천3백억원 이상의 인수가액을 지불하라'며 반발하자 취해진 조치였다. 즉 코카콜라측은 기존에는 범양식품에 원액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만을 가져갔으나 이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범양식품의 사례는 단지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카콜라사의,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하나의 유형화된 행동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한 나라로 진출할 때에는 그 나라의 내수시장 크기, 임금의 수준, 민족주의의 고양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코카콜라의 경우 현지 생산업자에게 원액만을 공급하여 업자에게는 약간의 이익과 소비자에게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생산하는데..'라는 일정정도 민족의식의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접근한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맛들이기'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헐값에 공장시설과 시장을 인수해 나가는 단계를 밟게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이윤극대화'라는 그들의 목표에 비추어 볼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다국적 기업의 이중 착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여 다시 코카콜라가 원액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민족적인 대응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자본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자본의 이러한 뒤로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다.

또하나 이번 코카콜라 문제에서는 가려진 다국적 기업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들의 이중착취의 문제이다. 즉 다국적 기업은 현재 국가 특유의 전통적인 위계질서 등의 노동관행이나 조악하기 짝이 없는 노동법규와 저임금으로 1차적 착취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큰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본국의 노동통제방식을 도입하여 2차적 착취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윤을 찾아 헤매는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어 상품, 노동(Blue Round), 환경(Green Round)을 매개로 끊임없이 부유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는 것은 개별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넘어 세계 총자본에 반대하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다.

이 은 희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정보 기자〉

소금상자 **임단협**

임금 및 단체 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1년내지 2년동안의 임금과 단체협약을 토론, 합의, 결정하는 자리로서 매년 5월말쯤 각 사업장별로 시작된다.

먼저 임금협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올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이는 임금협약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으로써 매년 폭등하는 물가로 인한 생계비 증가분에 대해 탄력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사전에 막기위함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에서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협약을 맺거나, 불가피할 경우 생계비가 예상을 초과하여 증가할 시 보충협약을 반드시 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위 사업장의 2년동안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등을 결정하는 자리가 단체협상이다. 올 노동법 개정에서 '성실한 교섭위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의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성실한 교섭의무로 고침으로써 사용자측의 개악안에 대한 노조의 교섭불성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용자측이 일방적인 개악안을 제시하고 이를 노조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섭불성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노조측의 교섭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올 임단협에서은 작년 노동법 개악으로 정권이 자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단협 투쟁이 훨씬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 CAN DO!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정규영어 회화과정
집중영어 회화과정
영 어
기초 영어회화
유학·진학·취업 영어
일 본 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 / 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Ⅰ·Ⅱ·Ⅲ)
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
NHK 일본어
교수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
NEW 최신 프로그램
통신영작 강좌 (교육프로그램 사업부 723-6874)
대학편입 영어
전문 프로그램
압구정 미국 WISCONSIN 대학반
종로 독어·불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로·압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종 로 276-0579 (영어전구) | 신 촌 719-0579 (영어전구) | 압구정 516-0579 (영어전구) | 강 남 553-0579 (영어전구)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국제전문 가상도서관 구축을 위한
인터넷 학술정보 탐험대회
http://iews.yonsei.ac.kr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학 및 지역학에 대한 대학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학술정보 탐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을 전국의 대학원생으로 하고, 정보의 주제도 학술적인 내용으로 국한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연세대학교
• 후원:동아일보사, 코오롱정보통신(주)
• 대상:전국대학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특히 국제학 및 지역학 전공 학생
• 문제게시 및 답안접수:http://iews.yonsei.ac.kr
1차문제게시:5.22(목) 정오
1차 답안접수:5.22(목)~5.26(월) 정오
2차 문제게시:5.26(월) 정오
2차 답안접수:5.26(월)~5.29(목) 정오
• 입상자는 6.4(수) 정오, 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문의사항: webmaster@ellie.yonsei.ac.kr 또는 361-3510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상품

순 위	인 원		내 역
최우수	1명		펜티엄 PC
1등	A그룹	1명	레이저 프린터
	B그룹	1명	
2등	A그룹	2명	컬러 잉크젯 프린터
	B그룹	2명	
3등	A그룹	5명	CD-ROM
	B그룹	5명	
기타	A그룹	25명	도서상품권
	B그룹	25명	

• 1차 및 2차 문제를 A,B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 채점함. 전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답안을 제출한 학생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함.
연 세 대 학 교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YBM 시사영어사 어학 학원
(본 원)
영어·일어·중국어
• 엘리트 종합 TOEIC • 안박사 TOEIC • TOEIC L.C. • TOEIC R.C. • TOEIC 단계별 공략 • 아카데미 TOEFL • 신경향 TOEFL • TOEFL L.C.
• 영어 순해 • 기초 L.C. • AFKN 청취 • VOCABULARY • 영 작 문 • 영어실력기초 • Communicate 회화 • Side By Side 회화
• Interchange 회화 • 미국인 회화 • 통역대학원 입시반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회화 • 주말 특별 과정
미국인 회화과정(YEC)
YBM English Conversation
• 정원제 실시
• Level Test후 반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본 학원에서 개발한 최신교재 사용
대표전화 : 276-0509
탑골공원(종로2가) 맞은편 YBM 시사영어사 뒤

학원 3주체, 이렇게 선다!

‘난사람’ 보다는 ‘된사람’ 이 좋다

“요즘 학생들은 민족의식 · 국가의식이 부족하다”

두번째, 교수
3. 김정위(이란어과)교수를 만나

배움의 성지

대학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에서 이 말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배움이란 단지 학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학문과 더불어 사회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르치는 곳이 진정한 ‘배움의 성지’란 대학의 정의일 것이다. 그 속에서 교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바로 대학에서 교수의 위치는 지식전달, 학문탐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의식들을 학생들에게 제기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켜주는 역할.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일임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 대학사회의 모순을 바꾸려 노력했던 교수가 있다. 아니 1992년 11월 교수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총장제 직선에 찬성표를 던졌던 200여명의 교수가 있다. 그 교수들을 대표해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김정위(이란어과) 교수를 만났다.

“배움이란 항상 일상적인 일이란 걸 알아야 한다”

김정위(이란어과) 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동양어대 학장실에서 본 시구절이다. 배움을 평생동안 실천하고자 하는 김교수의 심경이 담겨있는 말이다.

올해로 만 60세. 환갑잔치가 있는 해이고 올해로 우리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온지 벌써 30년이 된다. 김교수는 76년 우리학교에서 아랍어 첫강의를 맡기 시작했고 그 다음해부터 이란어과 교수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동양어대 학장, 한국 이슬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총장직선제의 출발은 92년 김교수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다. 3월 하순 교수협의회 평의회 첫 모임에서 총장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적되었고, 교수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총장선출은 재단(동원재단)에서 임명하고 교수협의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편 8월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총장직선제 찬성 90%) 그 결과는 9월에 접어들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까지 알려지면서 학내의 가장 큰 논쟁거리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학내 여론을 등에 업고 그해 11월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총장선출방식을 기존의 ‘재단 임명, 교수협의회 인준’에서 교수협의회가 재직교수를 대상으로 직접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럼 김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왜 총장직선제를 주장하게 됐나

학교의 대표격인 총장을 재단이 아닌 교수가 직접 뽑음으로써 대학에서 교육 ·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자구책’ 마련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또 당시 분위기가 교수들이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는 분위기였다. 거기다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우리는 왜 못하냐’란 오기도 직선제 쟁취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 같다.

반대한 교수들은 없었나

당시 이강혁 총장은 ‘직선제가 불안만 가져오고,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몇몇 보직교수들도 ‘직선제의 실시는 인물보다는 학내 인기도에 따라 총장이 선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교수들이 적극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직원들의 참여열의는 어느 누구보다 높았으나 당시 교수협의회에서는 그들의 참여를 반대했다. 그로인해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학생들이 선거장소를 가로막는 사태까지 왔다고 한다.

당시 학생, 직원들의 총장직선제 참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른 학교의 선례도 없었어고 시기적으로 너무 급진적이란 생각이 교수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당시로선 직선제 자체의 쟁취가 더 중요했다. 3자 참여의 직선제 쟁취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아마 3자참여를 제안했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직선제를 반대했을 것이다.

학원의 3주체(교수, 학생, 직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곧게 서야 진정한 대학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주인의식이라는게 각자의 지위와 역할 속에서 올곧게 서나가야지 교수, 학생, 직원이 동등하고 일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일로 인해 한번 투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자랑할 일은 못된다. 80년 5월 17일 계엄령 전국확대 직전에 교수 134명이 발표한 ‘교수민주화선언문’에 나도 참가했다. 아는 교수의 부탁이었고 ‘계엄철회’와 ‘민주화’를 위한 선언이란 얘기를 듣고 기꺼이 참가할 것을 허락했는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김대중 반란음모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합수부에 끌려가 7박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표제출 강요를 받고 제출했으나 학교에서 사표가 반려돼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다.

직선제 폐단론을 주장하며 총장선출방식의 재고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기상조다. 우리학교는 실시한지 1회 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직선총장(현 안병만 총장)이 취임하면서 예전 총장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30여년 재직을 통해 학생을 보는 눈이 남다르리라 생각되는데. 요즘 학생들에게서 느낀 문제점이라면

얼굴 표정이 참 밝아서 좋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또 예전보다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이 미흡한 것 같아 걱정이다.

‘난사람’ 보다는 ‘된사람’을 좋아한다는 김교수. 바로 그의 모습이 ‘된사람’ 즉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른지 생각해볼 일이다.

문화부

학내 코카콜라를 없앤다

상쾌한 이순간, 불쾌한(?) 코카콜라

이제는 서울배움터에서 코카콜라 자판기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서울배움터의 학복위에서는 콜라자판기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고 용인배움터의 학생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번 공개입찰때 콜라를 무조건 배재시키려하고 있다.

지난 달 코카콜라가 바틀러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려고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에 항의표시를 한 회사가 범양식품이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 보자.

범양과 코카콜라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자.

“바틀러인 범양은 계약기간중 코카콜라와 외에 다른 음료는 일체 생산, 판매, 취급할 수 없다. 바틀러는 코카콜라가 정하는 판매 성장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야 한다. 원액의 가격과 공급조건은 전적으로 코카콜라가 결정하고 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액공급계약은 해지된다. 계약은 기간만료시에 자동종료되며 바틀러는 이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한겨레21발췌

범양은 이러한 계약에 묶여 다른 음료를 개발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계약이 끝난 지난 4월 1일부터 콜라원액공급을 전면중지하고 공장 하나만해도 최소한 2천 3백억원이 된다고 하는 범양식품전체를 모두하여 5백억으로 헐값에 인수하려고 했다.

서울배움터의 복지위원회에서는 7년여전부터 코카콜라를 교내자판기 품목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여지껏 이 음료를 원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저버리지 않고 콜라자판기를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범양식품에 관련한 코카콜라의 행태는 용납하기 힘들다”며 학생들을 최대한 설득한 후 콜라자판기를 폐기할 예정이라고 학복위 위원장 김형동(서양 · 영어 4)군은 말한다. 이에 자판기 업체인 주식회사 신강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학생복지위원회측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 또한 도서관에서 만난 정철락(상경 · 경제 4)군은 “코카콜라사에서 바틀러-코카콜라본사에서 원액을 공급해주면 이로 현지에서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업체-회사를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사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틀러회사에 대한 자산가치를 재평가하지 아니한다면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모든 자판기가 코카콜라자판기인데 다행히 이번 이 주식회사 두산과의 계약이 끝나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생활협동조합 위원장 채근수(서학 · 불어 3)군은 “대학이라는 곳에 민족자본이 아닌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진 코카콜라를 들여 온 것 부터가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이면 이번학기로 자판기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새로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이런 계약을 조합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국내자본 대 외국자본 비율에 관한 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범양식품사건으로 그 부도덕성이 드러난 콜라를 다시 들여올지 않을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서 채군은 현재 학생대표이사들은 코카콜라는 배제시킨다는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수 · 직원이사들에게 공개입찰전에 만나 학생측의 입장을 설득을 할 것이라고 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지성인들의 모임이며 도덕과 이성,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코카콜라가 꼭 먹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코카콜라가 더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호식품이 되면 안되는 되어서는 안될 이유를 생각해보자.

서윤경 기자

생활 시평

열사를 바로 보자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언제 죽는냐도 문제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 최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역사가 깊지만 -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사들의 모습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熱死(열사).

무언가를 열렬히 요구하고 기원하면서 죽는 것을 말한다. 분신, 할복 등의 자살과 고문, 폭행, 직격탄, 병사 등의 타살로 죽는 방법도 다양하다.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도대체 왜 죽어가는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그 무언가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지 모를 일이다. 분신을 택한 전태일, 직격탄을 머리를 맞은 이한열, 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오랜 감옥생활과 고문으로 인해 병을 얻어 죽은 김남주 시인.

그들 역시 사랑을 했다. 조국에 대해 민중에 대해. 그것이 단지 보통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높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단지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리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고 비난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누구 말처럼 ‘재수없어서 죽은 것’이라고 냉소의 눈길을 보낼 것인가.

모두 아니다. 그들은 재수 없어서,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의 재수없음은 언젠간 일어날 필연적인 일이었으며(강경진압, 직격탄 난사는 필연적으로 부상학생을 속출하게 한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고, 고문과 폭행으로 직격탄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들에겐 ‘죽음’에 관한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다. 선택권은 정권에게, 그들을 진압한 전투경찰에게, 그들을 고문한 수사관에게 있었지 열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홍연화 기자

생협 보여주기

생협 입법 추진 현황

지난해 12월 25일 신한국당은 지역, 직장, 단체,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을 농수축협과 같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최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김재천 의원과 재경원 관계자등 관련 부처와 당정회의를 열고 법적 보장이 없는 임의의 단체인 생협이 공신력 결여 등으로 운영상 제약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해 생협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협은 구매공제사업, 공동이용시설사업, 공제사업, 문화복지사업, 교육사업, 판매공급사업 및 대외무역 등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김재천 의원이 마련해 7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초안에 따르면 조합은 15명이상 조직 구성원의 발기로 설립하고 사업출자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되어있다.

또 지역연합회는 5개 조합이상 전국연합회는 30개 조합이상 동의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법안은 조합원 가족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 연도마다 적립금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용고와 납입출자좌 숫자에 비례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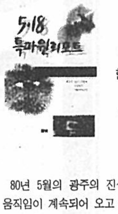
이밖에 조합원이나 회원의 책임한도를 납입출자액 한도로 국한해 유한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생협활동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경원 장관이 집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당이 법제정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재경원이 금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고 노동관계법 등 주요현안도 많아 올해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옹달샘

새 책

5 · 18 특파원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무등일보,
시민연대모임
엮음

풀빛/10,000

80년 5월의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당시 광주에서 내 · 외신 기자로 있었던 사람들의 글이 실린 이 책이 만들어졌다. 광주, 80년 5월의 광주는 거짓된 언론으로 그 진실이 철저히 가려지고 그 사건을 철저히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당시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장면들, 광주의 진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역사의 처참한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 책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기자로 광주주재로 있었던 사람들을 꽤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진실로써 얘기하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당시의 침묵했음을 그리도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글을 쓰면서 수치를 느꼈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이다. 단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면죄부를 사고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광주가 또 다시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제도권 신문에는 거의 그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이 혹 그런 광주의 시기는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주의 비디오

첨밀밀(甛蜜蜜)

감독: 천커신
출연: 장만옥, 여명

무술과 액션에서 벗어나 영화, 그런 홍콩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멜로물로 분류되는 이 영화는 그저 사랑이야기만은 아닌듯 싶다. 중국, 홍콩, 그리고 미국. 이것은 어떤 경로인가? 중국본토에서 나온 여명과 장만옥. 홍콩에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는 이들, 또 홍콩의 영국반환을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렵게 사라지는 사람들. 홍콩이 반환이 되기 전까지 전개되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장면, 이 영화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명과 장만옥은 중국본토에서 홍콩넘어와 치열하게 살아가는 두 젊은이의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를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어제만나 내일 헤어진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 요즘 이 영화는 잔잔히 다가올 것이다.

강 연

제1회 한겨레 영상 축제 한마당

한겨레문화센터에서 2년동안 배출한 애니메이션, 비디오제작, 영화제작학교 수강생 작품을 모아 영상제를 마련하였다.

일시:5월 19일(월)~21일(수)
장소:창무포스트극장
(홍대입구)3375-961/3
입장료: 정회 무료

19일(월) 애니메이션 마당
1시, 3시, 5시, 7시:press,그날 밤에 있었던 일, 회상 그리기, 토막, 장미와 공주님,파리잡는 사나이, 변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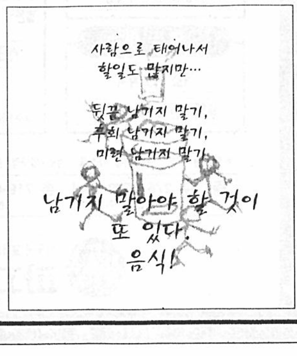
20일(화) 다큐멘터리 마당
1시:이반, 수인선, 꿈,
박봉급의 세금일기 외
3시:상철이의 소리찾기, 개고기,
짧은 애기 외
5시:96서울지하철,
팡팡나라 무당개구리, 장터
7시:포르노보다 낯선 노뉴단,
외국인 노동자, ‘비만세’ 작품,
노뉴단대표 김명준선생님과의 만남

21일(수) 단편영화 마당
1시:허스토리, 바로 지금, 원정 외
3시:두사람, 15분 20초,이방인의 꿈
5시:IN-OFF,동행,WAKE UP,
식빵굽기,귀향
7시:닥쳐!, 파수꾼,세미다큐,
외투(여균동)

[illegible]

요일 \ 구분	조 식	중식 Ⅱ	석식
월(19일)	소고기미역국백반 (₩1,300)	미트볼정식 (₩2,000)	짜장밥 (₩1,300)
화(20일)	제육덮밥 (₩1,300)	열무보리비빔밥 (₩1,800)	어묵백반 (₩1,300)
수(21일)	동태찌개 (₩1,300)	스파게티&미트소스 (₩2,000)	선지국백반 (₩1,300)
목(22일)	순두부찌개 (₩1,300)	닭강정 (₩1,800)	햄하이스 (₩1,300)
금(23일)	짬뽕밥 (₩1,300)	함박스테이크 (₩2,000)	라이스오믈렛 (₩1,300)

〈제공: 총무처 후생과 · 생활협동조합〉



反문화유산의 해
–미술인연합 사무처장 백창흠씨를 만나

“통일을 만들어가는 창작의 자유를 지향한다”

3. 민족미술

민족미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추상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민족문화에 대해 전국민족미술인연합(민미연) 사무처장 백창흠씨를 만나 벽화를 중심으로 민족미술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민족미술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사회의 미술은 대중과 유리된 문화이다. 우리의 교육구조는 미술의 감상과 창작 등에서 파편화되어 있어 미술을 올바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자신이 직접 창작하기도 힘들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구조 속에서 그 작품을 소유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에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친숙한 미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민중미술이다.

전국민족미술인연합(민미연)은 무엇인가

예술은 대중과 같이할 수 있어야하고 민중으로부터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분단상황 때문에 예술도 그에 따라 안보논리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것들을 거부 하고자 일어난 것이 민미연이다.

벽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달라

처음 벽화운동의 시작은 85년도 ‘신촌역 벽화사건’이다. 당시 ‘망치로 벽을 깨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경찰과 안기부에서 못그리게하여 결국 그려놓았던 것도 지워졌다. 이후 ‘힘전사건’이 있었는데 이 벽화 또한 지워졌다. 이후 계속 벽화관련 사건이 계속 이어졌고 김정언씨 등이 그린 교도소 벽화도 있었다. 그런후에 대학내에 벽화운동이 전개되어 경희대, 서울대 등 미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내 벽화운동이 펼쳐졌다.

94년도 부터는 MBC와 6개월간 벽화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90년대에는 다시 대학내에서 다시 벽화운동의 바람이 불었다.

민중미술로서의 벽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벽화라는 것은 공공미술이다.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소유이고 상업성도 없으며 내용성도 있다.모두가 함께 만들고 모두가 감상할 수 있다.

판화라는 장르가 특별히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판화라는 형식은 같은 작품을 여러장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쓰인 것이지 특별히 목판화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민족미술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는 좀 침체되어있다.궁극적으로는 나아진 사항이 없는데 야합으로 정권창출방식자체가 이전과 다를바 없는 김영삼이라는 도장만이 바뀐 것 뿐인데 문민이라는 가식 때문에 현시기에는 모두들 민중미술 내에서 전선이 약화되었다.

문화운동속에서의 미술운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는가?

지금은 전선이 과거보다 불분명하여 군부때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다. 끊임없이 참고 싸워야 한다. 열심히 작업하여 작품을 만들고 더욱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민미연의 나아갈 방향을 말해달라.

‘새들도 좌우의 날개로 날아다닌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모두 혜택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게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민미연에서는 분단으로 시작된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미술 활동의 구조에 반하여 통일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떠한 매체를 통해 만들 때 자유로이 만들 수 있는 창작의 자유를 지향한다.

이지나 기자

우리의 벽화 그리고 바닥그림이 이야기하는 것들

각 대학마다 인상적인 벽화나 바닥그림이 꼭 하나씩은 있다. 가까운 경희대의 오래된 청년 벽화로 해서 전남대, 홍익대 등 벽화가 없는 학교는, 벽화가 없다면 바닥그림까지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 그 임수경이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두 팔을 높이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 서울배움터 벽화의 모습이 본관 측면 벽쪽에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외대인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과 의지가 영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려진것으로 90년에 당시 총학생회 문화부에서 공간개조를 위한 사업으로 벽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미술대학이 없는 우리학교에서 주체적으로 그려지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이 주도적으로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것이다.

벽화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벽화와 성격이 비슷한 바닥그림이다. 용인배움터를 한번 보자. 학생회관 앞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바닥그림이다. 이 그림은 학생회관 옆쪽에도 두 작품이 있데 이들 대부분을 그린 곳이 ‘그림사람’이다. 그림사랑은 그림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림사랑에서는 91년도의 해방광장의 바닥그림을 시초로 바닥그림을 시작하였다. 90년대초에는 각대학과 연대하여 성조기밟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여 학생회관 앞에 아직도 성조기의 형체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후 95년도와 올해 초 학생회관 옆 길에 바닥그림으로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왕산인의 단결을 그림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림사람은 벽화를 그려보고 싶지만 지원금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미관상 안좋다는 이유로 이를 어문관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삭막하기만 했던 서울배움터에 임수경벽화가 그려진 후 훨씬 밝아졌다는 사실을 볼 때 학교측의 현재입장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서윤경 기자

대동제 이렇게 열린다

서울, 문화적 담론 무성 용인, 정세속 간결하게 진행

사진은 서울배움터의 대동제 첫날인 19일(월)의 모습이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의 축제는 예년과 조금은 남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문화적 담론(락, 동성애 등)들이 선보일 채비를 마쳤고, 용인은 대동제를 정세의 연장선으로 보고 이번 대동제를 현정권과 미국에 대한 허실성을 폭로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긴 대동제보다는 짧고 내실성 있는 대동제를 표방하며 기존의 1주일 대동제 기간을 과감하게 3일로 줄였다.

특이할 만한 내용 몇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지역주민, 농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행사가 양배움터에서 치러진다. 서울은 20일(화) 노동자·학생연대주점, 21일(수) 부터 23일(금)까지는 농민·학생연대주점으로 순창군 농민과 학생들이 함께 마련하는 주점이, 용인은 여주농민회와 ‘우리농촌 살리기와 북한동포돕기’를, 지역청년단체와 ‘북한동포돕기’를 통해 연대의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용인배움터에서는 북한동포돕기와 관련해 ‘무작정 돕자’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로 북한바로알기의 차원으로 ‘북한민속놀이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서울배움터에서는 ‘아, 대한민국’을 통해 현정권의 정치·경제·인권 전반에 걸친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현정권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한다.

이번 주에 양배움터에서 치러질 대동제가 마냥 ‘즐기기’만 하는 대동제가 될지, 배움터 학생들 사이에 한가지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대동제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서윤경 기자

문화단신

용인

캠퍼스라이프 사진 전시회

어제, 19일(월)부터 시작된 사진전시회가 23일(금)까지 사진동아리 누리에 주최로 학생회관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터생활을 하는 모습과 용인배움터의 아름다운 모습, 학생들이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담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총 60여점이고 새내기들의 작품으로 해서 92년도에 찍은 것도 있으며 과거에 당구장을 했던 아저씨가 찍은 찬조작품 1점 등 여러 작품들이 전시된다.

아웃사이더, 14번째 정기공연 열려

오는 21일(수) 오후 5시 노천극장에서 아웃사이더가 14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정기공연이란 의미도 있지만 대동제의 개막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내기부터 졸업선배들까지 무대에 나와서 발라드, 락, 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20여곡들을 선보인다. 아웃사이더의 한 회원 김상욱(서학·이태리 2)군은 “다같이 함께 하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러한 취지아래 이 공연에는 관중즉석 노래부르기를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

외대합창단, 열번째 하모니아 메이

외대합창단에서 우는 23일(금) 오후6시 대강당에서 ‘열번째 하모니아 메이(10th hamonia may)’를 개최한다. 합창단에서는 정기적으로 5월에 치루어지는 이 공연을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단원들의 사랑과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합창단에서는 아카펠라, 마드리갈, 성가 등 다양한 잔르의 20여곡을 새내기들의 율동을 중간 중간 더하여 무대 위에 올린다.

제2회 모의 유엔영화제 (The 2nd Model UN Flim Festival)

2회 모의 국제 영화제가 5월 20일(화) 오후 4시에 인문과학관 310호에서 열린다.

‘21세기 지역블럭화와 유엔의 역할변화’가 올해 9월 20일에 있을 총회의 의제이다. 이와 이 의제와 관련하여 그 영화의 내용과 부합되는 영화 두편, 플래툰과 파워 오브 원을 상영한다. 이번 총회는 올해의 의제를 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시킴은 물론 총회홍보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 영화제는 간단한 책자를 통해 영화상영전에 영화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촌, 외대미전 개최

서울배움터 교내 전시장에서는 19일(원)부터 25일(일)까지 동아리 그림촌에서는 외대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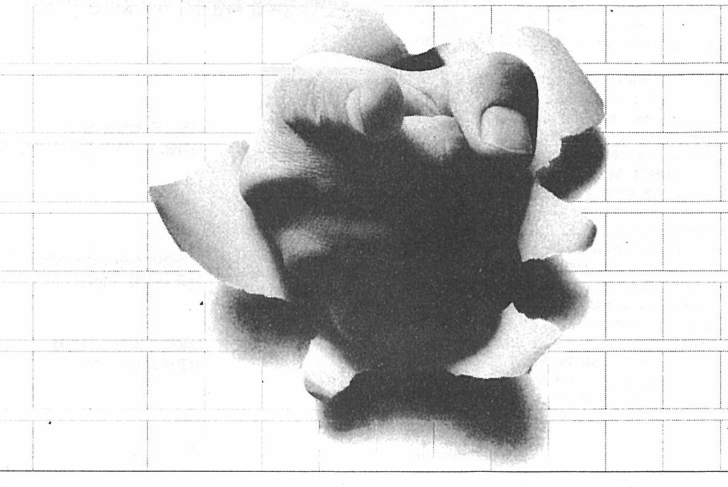
68년부터 시작된 외대미전은 봄과 가을에 행사를 치루었으며 이번 미전이 51회이다. 한편 이번 미전에서는 유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채화 및 복합재료를 사용한 작품도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해 그림촌 회장 김성민(상경·경영 2)군은 “전시실과 미전에 사용할 도구를 학교측으로 부터 빌리느라 애를 먹었다”며 “홍보를 많이 한 만큼 학우들이 많이 와서 그림촌의 여러 그림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전50년, 도약50년

21세기 정보사회를 움직일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제5회 전국 대학(원)생 정보통신논문 현상공모

1.응모자격
전국 각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전공불문)

2.공모주제
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논문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도 가능(소프트웨어 개발논문 포함)
나. 정보사회 구현에 관한 연구논문
예)①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산학협동체제
②정보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기업 또는 학계의 역할

3.논문분량
● A4용지 20매 내외
● 요약문 A4용지 2매 내외 첨부

4.응모마감
1997년 9월 30일(우송시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논문제출처
①(100-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51
매일경제신문사 정보통신부(TEL : 2626-205)
②(150-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서관 17층
LG정보통신(주) 홍보(TEL: 3777-2764)

6.심사
가.심사위원은 학계 및 관련업계를 망라한 사계의 권위자로 매일경제신문사가 위촉
나.전체 응모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비통과 논문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7.입상자 발표
● 1997년 10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8.시상
● 대상(정통부 장관상) 1편:
상장,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금상 2편 : (일반 1편, 기술 1편)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은상 2편 : (일반 1편, 기술 1편)
상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동상 6편 : (일반 3편, 기술 3편)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지도교수상 ○명 : 감사패, 상금 200만원
※시상식은 1997년 11월 4일(화)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9.기타
● 입상자가 LG텔레콤 및 LG정보통신 입사를 희망할 경우 특전부여(회사선정은 주최사가 결정)
● 응모시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제출
(신청서는 각 대학 학생처에 비치 예정임)
● 수상논문집 발간(97년 12월中)
● 응모 논문은 주최자 소유(예외 인정)

■주관 :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TV, (주)LG텔레콤, LG정보통신(주)
■후원 : 정보통신부
■협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학회

LG텔레콤 LG정보통신

전경 원천봉쇄… 류열사 주검 조선대 안에

"9박 10일이 되더라도 장례식을 치르겠다" 학생들 결의

지난 16일(금)부터 조선대학교에서는 고 류재을(행정 2)군의 장례식을 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광주시민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대 학생이었던 고 류재을군은 지난 3월 20일(목) 조선대 개강투쟁선포식에서 교문안까지 들어오는 전투경찰의 광폭한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류군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3월 21일(금)부터 꾸려진 학생대책위는 일주일에 서너번씩 집회를 열고 경찰측에 공개적인 증인조사와 현장검증을 요구해 왔다. 또 16일(금)에 조선대 총학생회는 광주를 방문한 내무부 장관에게 사인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이 예정된 16일 전날 15일에 강위원(전남대 국문 4)한총련 의장은 검찰에 △류군이 시위도중 사망했음을 인정 △장례식 참가를 위해 광주에 오다 연행된 학우 석방 △류군 사인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것을 실천할 것 등이 담긴 공문을 띄웠다. 그러나 경찰은 류군이 시위도중 사망했다고 하다가 '시위현장에서 사망'으로 말을 바꾸고 결국은 '시위대 부근을 지나다 사망'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 18일 집중투쟁을 17일부터 집중하겠다며 경찰이 장례행렬을 막는다면 경찰서, 법원을 비롯한 광주의 모든 공기관을 화염에 휩싸이게 하겠다"고 하였다.

16일 오후에는 발인과 영결식, 교문앞 노제 후 밤에 장례 행렬이 정문을 빠져나갔다. 고 류재을 군의 아버지(류성렬 53)가 장례행렬을 막는 전경들에게 맨몸으로 다가가 "우리 아들을 묻기라도 하게 길을 터달라"고 하였으나 전경들은 아버지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이에 류군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죽인 전경이 눈앞에 한명이라도 보이면 장례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아버지의 뜻대로 장례를 치르고 광주시민과 함께 류군의 노제를 도청앞에서 지내기로 결의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은 류군의 장례식과 도청노제를 치르기 위해서 17일(토)에는 노동자대회를 하던 민주노총 광전지부 노동자들과 함께 5·18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도청앞으로 가면서 '오늘 10시 조대로', '도청노제사수', '시민학생 함께하여 도청노제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선전을 하였다. 학생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재을이가 전경의 광폭한 진압에 의해 시위도중 죽었는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전경들이 막고 있다"며 같이 조대로 가서 학생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도청앞 전야제 무대앞에 다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는 구호를 외쳤고 마침내 전야제 행사 중 사회자의 요청으로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박수기 군이 무대위로 올라갔다. 박군은 "군부독재에 항의하여 일어난 5·18이 1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의 정권은 그때와 다름없다"며 "정권은 부검을 하고 장례식을 하자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부검을 한 모든 시신의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들이 재을이를 해부하여 두 번 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권은 장례행렬을 무참하게 폭력을 이용해 막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18일(일)밤에는 도청앞에 모인 시민들과 선전전을 나갔던 전남대 학생들과 서총련, 경기동부총련, 대전총련, 부경총련 학생들 이천여명이 장례행렬에 합류하기 위해 조대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 도청앞을 원천봉쇄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해 광주시내 교통이 마비되었다. 한편 17일(토)부터는 17층 건물인 조대 공대 옥상에서 밤낮으로 방송을 하여 광주시민에게 학생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18일(일) 밤에는 조대 부근의 시민들이 화염병을 만들라며 솜이불과 빈병을 가져다 주었고 전경과 대치하다 다친 600여명의 학생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170만원을 모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총련 의장은 "우리의 투쟁은 이제 외롭지 않다. 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며 "죽은 사람을 묻지 못하게 하는 반인륜적인 김영삼정권을 끝장내고야 말겠으며 우리의 투쟁이 9박 10일이 된다해도 끝끝내 도청노제를 하고 류열사를 망월동에 묻을 것이다"라며 전국의 백만학생이 광주로 모여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16일(금)부터 장례행렬을 막은 전경들은 19일(월) 여전히 장례행렬이 조대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인 전경은 전국의 전경이 광주로 다 내려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대 부근의 6차선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노란 헬멧을 쓴 공수부대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문앞에 연좌하여 하얀 연기와 노란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는 각종 최루탄을 몸으로 맞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허윤숙 기자

연대항쟁 성추행 사건을 고소, 고발한 여학우를 만나

"경찰보면 혐오감부터 들어요"

작년 8·15 연세대 통일 투쟁 당시 여자 연행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성추행 사실이 연대항쟁이후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현실속에서 지난 11월 20일 문수진(경기대 93, 졸업)양을 비롯한 7명의 여학생들이 당시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 진압경찰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했고 본보는 문양을 만나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사건 이후 정신적인 후유증은 없는가?

나같은 경우는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데, 중앙대나 숭실대 여학생중에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경찰이나, 특히 전경을 보면 혐오감부터 들고 '과연 저 사람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고소, 고발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성추행 사건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지난 9, 10일에 있었던 서총련 출범식 당시에도 연행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 성추행 사건은 나 개인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소, 고발을 결심했고, 작년 11월 20일 전국연합 등과 같이 고소, 고발을 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 성추행 사건의 고소,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유는 성추행한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연행과정에 취재기자들이 옆에 있었고, 또한 연행당시 남, 여를 알아볼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를 연행한 이들은 10중대였고, 경찰, 군대조직의 작전에서 사전계획도 없이 병력을 이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이후 그 병력투입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취재기자는 종합관 밖에 있었고, 연행당시 남, 여를 구분해서 연행해 갔는데, 남, 여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항고장을 4월말에 제출했고, 항고이유서를 다음 주안에 제출할 것이다. 검찰의 성의없는, 수사없는 수사결과 발표에 이대로 멈출수는 없다.

고소, 고발 외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학교차원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신문광고를 위해 모금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증인확보작업과 물증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대동제 기간을 맞아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며, 다른 대학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추행 사건의 방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여자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소문내고 다니냐'는 식의 관습을 깨고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여성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란 사실을 깨닫고 남자들이 적극 동참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준 기자

고 류재을군 부모님 인터뷰

"전례상 부검 통해 진상이 밝혀진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을이를 두 번 죽일 수는 없다"

지난 3월 20일 류재을 열사가 공권력의 살인폭력집압으로 죽은지 60여일이 지난 아직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는 류열사 부모님 류성렬(53세), 장명순(46세)씨를 만나 그동안의 심정과 아들의 장례식을 결정한 심정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애타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16일 고 류재을군의 장례식을 앞두고 류군의 아버지 류성렬씨는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2개월이 넘도록 공개수사를 요구했지만 '부검하겠다'는 소리만 계속하는 경찰쪽을 바라보며 "수사 한번 못해보고 자식을 묻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부검부터 이야기하는 경찰측에 류군의 어머니는 "전례상 부검해서 진상이 밝혀진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부검을 반대한다"고 얘기한다. 아버지도 자식을 두 번 죽일 수는 없다며 "진상규명도 안된 부검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공개수사를 요구하며 버텨온 57일동안 재을이를 그냥 묻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영안실 사용료를 비롯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변화없는 경찰측의 태도에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아버님은 얘기한다.

두달동안의 영안실 투쟁에서 부모님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재을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한 영안실에서 장기간 생활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이렇게 굳은 다짐으로 영안실 생활이 시작됐다. 자식은 죽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졌다는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의 애타는 권유로 식사를 하게 됐다. "우리는 정부, 경찰, 언론 등 모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당하고 나니까 그 본색을 알았어요" 무엇이 부모님의 생각을 바뀌게 했을까? 어머니는 학생들이 옳은 일을 정당하게 표출하는데 빨갱이니 뭐네 쓸데 없는 얘기를 하는지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덧붙여 지난 3월 20일 재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긴채 아버님을 동부서로 연행했던 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분노를 터트렸다. 장례식 하루 전날 영안실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흥분이 감돌았다. 액자 테두리에 너무도 곱게 꽃을 수놓은 새 영정이 두 개나 들어오자 그제서야 가족들은 재을이의 죽음을 실감하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우리 막내가 걱정이요. 재을이 팔베게가 없으면 잠을 못자는데..."

50여일만에 영안실을 찾은 막내 동생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을 잃고 있었다. 경찰은 부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장례식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장례식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버지는 장례식 저지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전부 경찰에게 물을 것이라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

아버지는 재을이 장례식을 앞두고 강력히 호소한다. "장례식 행사 때문에 학생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대기련 광주전남지부 공동기자단

기자의 눈

정권에 남은 건 '폭력'뿐

지난 17일 광주 도청 앞 금남로는 예년과 많이 달랐다. 5월 18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작년까지는 보이지도 않던 각 방송사 차량들, 휘황찬란한 조명들, 투쟁가 대신 귀를 울리는 축제분위기의 풍악이 거리를 가득메운 금남로는 겉으로 보기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러나 금남로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조선대학교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은 5.18을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치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날 조선대에서는 지난 3월 20일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숨진 조선대학교 96학번 류재을 군의 장례식에 참가하러 전국에서 모여든 6천여명의 학생들과 장례행렬을 막아선 약 1만2천여명의 전투경찰들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16일부터 3박 4일동안 그 과정에서 5백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경이 쏜 직격탄에 머리가 터지고 실명되고 피를 흘리며 3분에 한명씩 실려나갔다. 눈도 뜰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최루연기가 사라지지 않았던 조선대앞 전쟁터는 17년전 오월의 광주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화로운 행사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투쟁을 호소한 학생들과 함께 기만적인 5.18기념행사를 중단시키고 조선대앞으로 향하려 일어선 3천여명의 광주시민들, 그들을 다시 도청앞에서 막아서며 최루탄을 난사한 전투경찰들, 그리고 이 사실을 단 한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 또한 17년전 오월의 그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60일이 넘도록 묻히지 못하고 류열사의 시신이 아직 조선대에 남아있고 장례식은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장례식은 압도적인 대중의 힘으로만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광주에서 그 압도적 대중의 힘, 많은 이들이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민중의 역동성은 그날 도청앞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분노와 행동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죽은 자의 장례마저도 막아서고 있는 이 정권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폭력경찰과 최루탄뿐이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최루탄이라도 맘껏 쏘게 해주자"라는 한총련 의장의 말처럼 정권의 말로 또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었다.

김정회 기자

5·18 17주기와 현시국에 대한 시민·학생 의식조사

5·18, 미국개입 등 본질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56%
현정국 해결 방안, 김정권 사퇴요구 61%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광주전남지부에서는 5·18 광주민중항쟁 17주기를 맞아 광주시민과 광주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시민 50명, 학생 278명, 총 328명이 설문에 응했다. 편집자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내고 법정기념일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5·18. '평화롭고 경건한 광주만들기'를 주장하는 쪽은 남은 과제 해결을 강조하며 '투쟁하는 5월'을 만들자는 쪽이 팽배하게 맞서면서 5월은 폭풍 전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기념일 제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오월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1백58명, '특별법 재정과 전·노 사법처리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써 환영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5월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미국개입 문제와 책임자 완전처벌 등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와 '발포 책임자, 암매장, 군 자료 공개, 상훈치탈 등 상당부분이 미흡하다'에 모두 3백1명이 답했다. 특별법 재정과 전·노를 비롯한 책임자 사법처리로도 규명되지 못한 미국 개입문제와 발포책임자 등에 대해 그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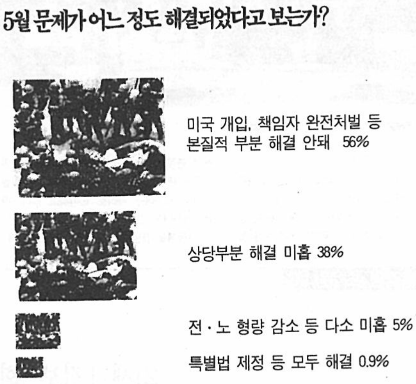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된 이후 논란이 된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2백87명)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란수괴, 학살책임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대통령의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5월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에 대해 '미국개입, 발포 책임자, 암매장 등 진상규명'에 가장 많은 1백85명이 답했고, 다음으로 '5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에 67명, '전·노 이외의 학살 책임자 완전처벌'에 52명이 각각 답했다. 그러나 '국경일 제정등 광범위한 기념사업'에는 12명만이 답함으로써 현재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념사업이 광주시민들의 5월문제에 대한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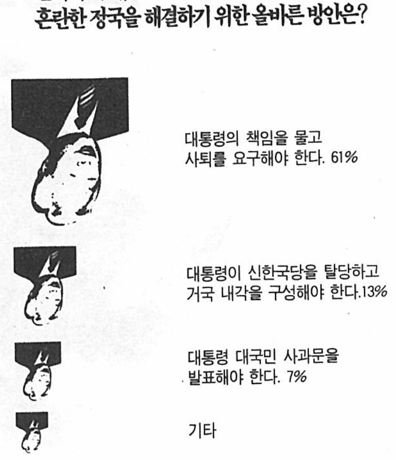
광주시와 일부 5월 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적이고 경건한 5월 광주 만들기' 속에는 위에서 요구한 각종 과제의 해결 대안이 확실하게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는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 학생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미국 개입문제가 규명되고 책임자 완전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화려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진정 '평화로운 5월광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시국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정세의 급박함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보사태와 대선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백1명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거국내각 구성에는 각각 22명과 41명이 답해 한보사태와 김현철 비리, 대선자금 문제로 이어지는 현정국이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국민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민족 대단결을 통한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2백3명, '도움을 주되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97명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식의 강자의 협상논리가 적지 않게 퍼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특별기획

〈북한 바로알기〉

1. 북한식량·경제난, 그 허와 실
2. 황장엽 사건, 그 본질은 무엇인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북한붕괴론

식량, 경제 어려움 속에도 정치적 동요 전무, 북붕괴 가능성 희박

주체사상 바탕으로 '경제전략' 통해 경제 활성화 시도

자력갱생, 신무역체계 이행, 농업·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등 북한식 사회주의 원칙 견지하에 위기 극복 시행

'고난의 행군'-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상하의 집단의지가 결합된 상징

연이은 북한의 큰 물 피해로 인해 북의 경제난·식량난이 가중되자 정권과 언론은 기다렸다는 북한 붕괴설을 퍼뜨리고 있다. 게다가 황장엽의 망명으로 북의 주체사상은 무너졌으며 북의 붕괴설을 더욱 설득력 있게 유포하며 노력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특별기획으로 과연 북은 붕괴할 것인가, 황장엽 사건은 본질은 무엇이며 주체사상은 끝났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현 시기의 북한에 대해 알려내고자 한다. -편집자

50년동안 쉬지 않고 떠돌어 온 북한붕괴론

'주체사상의 망명'(조선, 97.2.16), '아! 굶주리는 북녘'(한겨레 4월 특집 기사), '북한, 식량폭동으로 붕괴할 것'(조선, 97.1.21) '배고픈 겨울, 남하 줄 이을 듯'(조선, 96.12.5),

너무나도 낯익은 우리사회의 북한붕괴 예보들이다. 이러한 북한붕괴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영됐던 '똘이장군'과 '해돌이 대모험'이라는 만화영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대북보도와 대북관련 정보들은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의 붕괴를 예견해 왔었다. 해방이후 50년동안 북한은 한국언론에 의해 '붕괴'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다. 두차례의 대홍수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식량난,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가장 긴급한 식량난에 대해 북한은 감량배급이라는 일차적 방식과 함께 두 가지 해결방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대북지원확보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스스로의 자구적 수단을 동원한 대내적 예비확보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외부사람이 보기에 '신기할' 정도로 체제유지를 지탱해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단체로부터 3차례에 걸친 식량지원을 받고 있고, 95년 수해직후 일본 50만톤·한국 15만톤·중국 12만톤의 식량지원, 중국의 향후 5년간 식량 50만톤 무상지원(마이니치신문의 보도(조선, 96.7.18), 미국의 공법 480(PL480)에 의한 대북 잉여농산물 원조를 할 계획(시사저널, 97년 1월 8일자)등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식량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봉쇄조치로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했던 미곡물회사 카길사와의 식량도입협상도 최근 타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보도됐다.(동아, 97.4.9) 이같은 외부에서의 식량확보가 북한의 식량난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량의 일정부분을 충당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체방안으로서 농민시장의 확대나 국경밀무역의 묵인 내지 방조를 통해 이른바 '내부예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 8월에 세종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에 따르면 북-중 국경의 보따리 장사 규모가 3억불에 달하며 이는 실제 북한의 생필품해결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재로 이같은 평가는 북을 직접 방문조사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96년 12월 6일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WFP특별보고서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고(시사저널, 96.12.18) 미 국무부산하 대외원조처(USAID) 보고서 역시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한겨레, 96.6.22)고 못박고 있다. 결국 식량난이 곧바로 북한의 붕괴를 결과할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난, '새로운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극복

먹을 게 없는 식량난에 비하면 경제난은 오히려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덜하다. 어느 사회나 경제적 침체와 어려움은 항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으로는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른바 '새로운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표방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과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이라는 경제재건 정책으로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다. 실제로 1962년까지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남한의 4.7%에 비해 22.1%에 달했고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남한의 0.8%에 비해 17.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봉쇄정책으로 대외경제의 악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북한은 탈냉전의 국제정세를 적극 이용, 오히려 그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은 내적으로도 경제재건을 위한 나름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경공업혁명의 강조,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의 도입, 신무역체계 시행, 자력갱생의 인민소비품 해결 등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지한 선에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경제의 최대실험이라 할 수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이른바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우수한 숙련노동력과 외국자본 그리고 선진기술과 자연지리적 조건 등이 결합하여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에즈라 보겔 하바드대 교수의 평가(조선, 97.1.15)는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하다.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

어려움을 견뎌내겠다는 의지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상당한 체제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고립화 전략과 경제봉쇄 정책에 대해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의 견고한 저항의지를 내면화시켜왔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정신'과 '붉은기 사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동방의 사회주의 초소를 '옹위'해야 한다는 그들의 집단적 체제의지는 아직도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여기서 최근 북한의 '고난의 행군정신'이 가지는 담론구조를 살펴보자. 김일성회고록 7권에 실린 일제하 고난의 행군시기(1938년)가 지금 북한에서는 인내의 철학으로 집중 강조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것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세기와 더불어151쪽)

"인차 식사 끼수를 하루 한끼로 줄이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한끼마저 먹지 못하고 생눈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니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해방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배고픈 고생을 좀 해보아야 쌀이 귀한 것도 알고 농민이 귀중한 것도 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혁명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154쪽)

이러한 담론은 현재의 식량난을 마치 다가오는 혁명을 위한 하나의 시련대, 시험대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들의 집단 의지를 추스리는 유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겐 '고난의 행군'이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과 같은 조작된 신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행군기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자는 그리고 이겨내겠다는 상하의 집단 의지가 결합되는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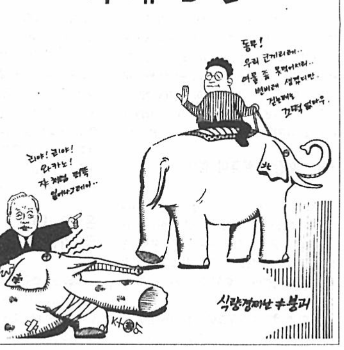
가능하지 않은 북한붕괴론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 결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붕괴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면,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진실에 가까운 존경심이 존재하고 있고 김정일의 정책수행에 대해 나름의 지지와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정신에 일상화 되어있는 북한체재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제붕괴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은 마찬가지로 섣부른 것일 수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 요미우리신문 기자 구와하다 유까(桑畑優香)씨(29)는 작년 8월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녀는 당시 북한의 인상에 대해 '얼굴색이나 옷차림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고 바로 그 점이 체제붕괴를 제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회상했다. 전 보안사 북한정보분석실장 이항구씨 역시 '우리사회가 북한과 김정일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나름의 출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통일경제, 96년 4월호)고 평가했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국장 박경서박사도 '북한체제의 붕괴조짐은 전혀보지 못했다'(한겨레, 96.3.11)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 체제는 지난 수십년간 고장난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고장날 수 없게 되어 있다'(북한중앙통신 96년 7월 26일)는 북한의 큰소리는 결코 헛소리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김 근 식
〈경희대 정치학 강사〉

외대만평



치료비 모금광고

600명이 다쳤습니다!

600명이 더 다칠지도 모릅니다!

안구파열, 실명위기, 이마함몰…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전쟁사상자가 아닙니다.

지난 16일(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조선대에서 고 류재을열사 장례식을 위해
전투경찰과 대치하다
다친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변변한 치료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모금합니다.
연락처) 서울)961-4152
용인)0335)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97년도 학생예비군 기본교육훈련 실시

'97년도 우리 대학교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예비군은 학과(대학원생은 대학원)게시판에 게시된 본인의 훈련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비상계획관실(예비군본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학(대학원) 학과별 교육일정

일 자	교육대상학과
6. 2(월)	서양어대학 전체, 사범대학 전체
6. 3(화)	동양어대학 전체,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6. 4(수)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법과대학 전체, 상경대학(상경계열, 무역학과, 경제학과)
6. 5(목)	상경대학(경영학과), 대학원, 세계경영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통역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전체, 장교, 장·단기 하사

2. 훈련장소 : 금곡 훈련장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3. 교육대상 : 일반하사·병 - 전역 1~5년차,
장교, 장·단기하사 - 1~7년차 학생예비군

4. 교육훈련 제외대상자

▶ '97년 전역 예비군
▶ 주민등록지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교육훈련에 불참사실이 없는 자
▶ 전역 6~8년차인 일반하사·병 및 8년차 이상인 장교, 장·단기하사 학생예비군
▶ 주민등록지에서 '96년도 대간첩 작전동원 참가자

5. 유의사항

▶ 대학(대학원) 학과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 장교, 장·단기하사 학생예비군은 6월 5일(4조) 별도 학급편성하여 교육
▶ 수송버스 이용 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바람.
▶ 개별 입소시에는 07:50까지 금곡훈련장 (미금시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것.
▶ 대중교통 안내 : 청량리 → 금곡 165-3번,
천호동 → 금곡1-3(좌석, 일반), 강변역 → 금곡9-1(좌석)
▶ 자가차량 주차 공간없음 (임의 주차시 위반차량 적발 및 견인)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할 것.
※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 변경

'97년도부터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홍보수단(학과게시판, 교내전용 게시판, 외대학보 게재, 교내방송) 등으로 대체되니 유념하여 착오없기 바람.

■ 귀가조치 및 불참 처리

지연도착자(08:00 이후 군부대 도착자) 및 복장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복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일치되지 않은 자)

1997. 5.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통역대학원 '98학년도 입시 설명회

지난 20여년간 우수한 전문 통·번역사를 배출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는 입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 개최일시 : 1997. 5. 27(화) 16:00
● 개최장소 :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행사 내용
▶ 통역대학원 소개
▶ 입시안내 및 입시준비 경험담
▶ 졸업 후 진로
● 설명회가 끝난 후 본 대학원 견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961-4406 (자동응답안내), 961-4113, 963-0558

통역대학원

용인캠퍼스 식품자동판매기 입찰공고

1. 입찰사항 : 식품자동판매기 운영
2. 입찰일자 및 장소 : 1997년 6월 2일 (월) 본 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실 (후생관 3층)
3. 입찰방법 : 공개경쟁 입찰
4. 낙찰방법 : 구비서류, 운영계획서 및 복지기금 납부액을 검토하여 결정함
5. 입찰보증금 : 복지기금 납부 예정액의 1/10 이상 (입찰마감 당일 당조합 총무과 입금)
6. 입찰참가자격: 자판기 20대 이상을 2개 이상 대학 또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회사
7.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일시 및 장소 : 1997년 5월 20일 부터 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총무과 (후생관 3층)
8.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 1997년 5월 27일 17:00
9. 입찰자 유의사항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조합에 귀속한다.
2)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단체입찰의 경우 조합에서 내정한 복지기금의 최저입찰가 및 판매가와 비교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찰한다.
10. 계약체결 일시 : 1997년 6월 20일 (금)15:00
11. 매장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외(현운영대수, 커피28대, 캔 16대, C.V.M3대)
12. 학생 및 교직원 수 : 7,000명
※기타 상세한 입찰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으로 문의 (전화, 0335-30-4192, 32-7068, F. 33-5683) 하시기 바랍니다.

1997. 5. 16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YS 死년과 反교육개혁 - ③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

'재벌'에 학교를 맡기는 것이 21C 교육의 비전인가

대학간 격차 심화 · 교육 부실화 등 병폐 우려

글 싣는 순서

1. 1차 교육개혁안
2. 2차 개혁안
3. 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
4. 3차 개혁안

△대학정원을 2000년 이후 완전 자율화한다

△대학별·학과별 등록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2000년 이후엔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

△오는 2002년까지 1개 대학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3개 대학을 1백위권안으로, 5개 대학을 5백위권안으로 육성한다.

△대학평가를 단과대학과 학과에까지 확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한다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또는 민영화·공립화하고 부실사학의 기업인수를 추진한다.

△사립대 국고지원을 2000년에는 사립대 재정의 5%, 2010년에는 10%, 2020년에는 15%가 되도록 유도한다

△2000년까지 1~2개 학과로 구성된 '특성화 전문대'와 '신대학'이 설립된다

△채용과 함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정년보장제 대신 연구업적 등이 반영되는 계약임용제를 도입한다.

96년 5월 22일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중 대학관련 핵심내용이다.

이 구상안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됐다. 또한 2000년까지는 이미 발표된 1, 2차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아래 탄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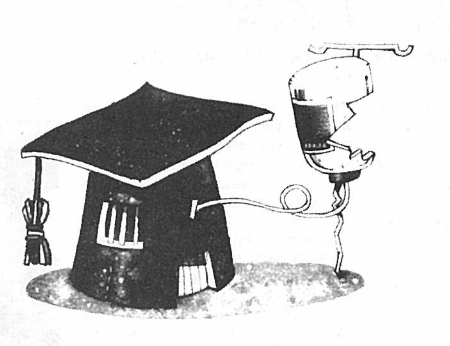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21세기를 겨냥한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보기에 '아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이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 사업으로 치부해 버린 사안들이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구상안들이 시행됐을 시 교육현장이 입을 막대한 폐해다.

자본의 논리에 먹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립대 민영화와 부실사학의 기업인수다. 이 방안은 교육기관의 소유주체와 공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방안은 공교육체제의 강화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자칫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맡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물론 교육부는 국립대 민영화의 명분으로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재정확충 방안의 다양화 △경직된 예산운영의 탈피 등을 들고 있다. 또 부실사학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대학발전을 꾀한다는 명분도 세웠다. 그러나 여기에 크나큰 맹점이 있다. 사학의 기업인수와 국립대 민영화에 나설 수 있는 집단은 일부 대기업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정부의 이 구상안은 결국 교육부문마저 재벌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논리다.



부실사학의 대안은 재벌에게 인수시키는것이 아니라 국고보조비를 늘리고 공교육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2차 교육개혁안에서도 '고학력 저임금'의 기능인력을 대량 육성하려는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 2차 교육개혁안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과 '신대학제도'가 그러하다.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은 산업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전문대 및 산업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산업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대와 산업대를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낙오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장으로 전락시켰다. 산업체 근로자들이 퇴근 후 원격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신대학제도'역시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 우려가 크다.(본보 691호 참조)

대학간 소모경쟁 "부익부빈익빈"

일부 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안도 문제가 많다. 이 방안은 서울대법 제정이 여론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변칙적인 방법으로 서울대에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하려는 의도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이 서울대를 비롯한 소수의 몇 개 대학에 집중지원되면 나머지 다수의 대학의 미래는 불보듯 훤한 일이다. 이로 인해 대학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명문대 중심의 학력차별이라는 사회적 병리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등록금 차등제 도입은 자칫하면 등록금 고율 인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현재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사이에 차등 책정되고 있는데 굳이 이를 거론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원자율화의 경우도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도 대학간 부익부빈익 빈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간의 소모적인 경쟁만을 일으킬 것이다.

교수계약제 도입 또한 무사안일에 빠진 일부 무능교수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정한 업적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서 문제시된다. 그 동안의 교수재임용제가 정부와 사학경영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교수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김 재 경
〈법·법학 4〉

기여입학제 왜 안되는가?

신종 교육투기 … 기회균등 차단

국고보조금 · 재단전입금 증액이 대안

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기여입학제는 올 2월 각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여 그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한 때 그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 안되는지. 기여입학제가 몰고올 폐단과 대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사립대 재정난 해결이 명분

기여입학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에 토지·건물·금전 등을 무상 기부하는 등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직계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 그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라 할 수 있다.

"재단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고, 그마저도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게 기여입학제 도입의 명분이다.

그래서 87년 8월 교육개혁심의회 교육발전 분과위원회가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사립대 총장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제도의 실시를 요구했고, 대교협 등 대학관련 단체가 끈질기게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그뿐 아니라 교육부도 "기여입학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돈으로 대학입학증 사는 행위 … 국민감정 등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민감정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돈=대학입학'이라는 일반 국민의 선입관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여입학제 실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 훼손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우려한다.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교육제도 자체가 돈 있는 자에게 유리한 데 이에 특혜를 더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도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부와 신분에서 나오는 기여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로, 부유층의 세습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돈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살 수 있다'는 배금주의 풍조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93년 청와대에 '기여입학제 반대 탄원서 보내기운동'을 펼친 바 있는 이재윤 중앙대 교수는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제도로, 부동산·증권투기 등과 일맥상통하는 '신종 교육투기'라고 잘라 말한다.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기부금을 상위권 대학들이 독점해 버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 규모의 대학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여입학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잡음과 비리가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재단이 대학 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부 재단이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으로 대학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편법보다 국고보조금·재단전입금·기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정공법이 교육적 측면으로 보나, 사회적 측면으로 보나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겠다.

이 수 미
〈인문·사학 4〉

크로니클

전경의 외침

0…광주를 울리는 목소리가 있어 크로니클자 알아본 즉,

"광주 시민 여러분, 재율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선대로 와 주십시요"

한편, 장례 행렬을 가로막은 전경들 왈 "청와대 주인님, 시민과 학생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훈〉

0…주인이 자기 집 가면서 표 내며 들어간다는 이야기에 놀라 달려가보니

5·18당시의 주역인 민중들이 5·18 묘역에 표를 받아야만 들어가게 했다는 이야기. 표를 구하지 못한 5.18민중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광주의 아들 류열사 장례 행렬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왜 5·18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얼〉

0…16일 크로니클자는 김영삼 정권의 부패를 두고 볼 수 없어 학우들과 함께 모여 교문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어느샌가 나타난 백골들. 이를 본 크로니클자 흥분. 그들에게 꽃을 던지자 그들은 되려 페퍼포그와 최루탄으로 탄압하더라.

이때 많은 학우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한송이 화염꽃을 던지기 위해 선봉대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권〉

선봉대의 꽃

비둘기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손소리샘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하루찻집'을 마련합니다. 수화공연도 보고 따뜻한 마음도 같이 느껴보세요.
때:5월 25(일)일 이른 10시부터 늦은 7시까지

〈손소리샘〉

· 중동지역 기도모임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번 주 지역연구는 '동방박사는 아랍인일까'이구요, 아랍·터키·이란어과는 대환영입니다.
때:매주 화요일 늦은 5시
곳:1308

· 북녘동포돕기 하루주점을 엽니다. 겨레사랑의 마음으로 많이들 오세요.
때:오늘(20일) 2시
곳:미네르바

· '개정된 노동법과 향후 노동운동의 전망' 강연있습니다. 강사는 노동이론 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박정인씨입니다.
때:오늘(20일) 늦은 7시
주최:북부노동자회·총학생회

· 모의유엔에서는 21차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할 대표위원을 모집합니다. 총회는 '21세기 지역블록화와 유엔의 역할 변화'라는 의제와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대상: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모집언어: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언어
모집기간:5월6일(화)부터 23일(금)까지
문의:961-4458

왕산골

□ 찾아가세요

· 교양관 416호에서 미아가 된 영한사전이 저의 보호 아래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아의 인상착의는 가죽표지의 금성뉴에이스 영한사전입니다.

연락처:012-881-2172

□ 알립니다

· TIME COVER 전시회를 합니다. 세계 이슈를 한 눈에 보고싶으신 분, 어서 오세요.
때:5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곳:학생회관 앞

· 사진반 누리에에서 캠퍼스라이프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장소:학생회관 1층 전시실
때: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 수고하셨습니다

· 북한수해동포돕기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바자회를 일구어내신 인문대 학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문대 학생회〉

□ 축하합니다

· 5월 태어난 사학과 96들아!
정말정말 축하한다

〈사학과 학생회〉

· 정은영, 심재희, 하순, 한혜원, 이선숙, 김선창, 김학서, 내가 아는 모든 96들, 성인의 날을 맞아 축하드려요.

〈친구〉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핸드볼부, 교내 핸드볼 대회 개최

19일(월)부터 과대항 경기 가져

28회 동문기 쟁탈 핸드볼 대회가 대동제기간인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열린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는 남자 26개팀, 여자 2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과대항으로 진행되며 경기는 하루에 6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대회 마지막날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며, 단체상외에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개인시상도 있다.

이와 관련, 핸드볼부 부원 유해국(동양·중국어 3)군은 "작년에도 대동제기간과 대회기간이 겹쳐 기권팀이 많았다"며 "실력차가 별로나지 않는 경기인만큼 올해는 많은 팀이 참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핸드볼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신입부원을 모집한다. 핸드볼부에서는 2년마다 일본 나고야 대학과 친선경기를 가진다.

통역대학원 입시설명회 27일

재학생들의 경험담 소개 시간 마련

우리 학교 통역대학원의 98학년도 입시 설명회가 오는 27일(화)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열린다.

△통역대학원 소개 △입시 안내 및 입시 준비 △재학생 경험담 소개 △ 졸업 후 진로 안내 △통역대학원 견학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통역대학원의 입시설명회는 작년까지는 2학기때 개최했으나 입시생들의 요구로 앞당겨졌다. 또한 입시생들이 재학생들의 실제 입시 경험담을 듣기를 원하는 관계로 경험담 소개의 시간이 연장되었다.

설명회를 준비한 통역대학원 류재화 사무주임은 "통역대학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입시를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 많다"며 "설명회에 참석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특히 외대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79년에 설립돼 국내유일인 통역대학원의 전형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 - 10월 13일(월)에서 29일(수)까지 (대학원교학과)

원서접수 - 10월 22일(수)에서 29일(수)까지 (대학원 교학과)

1차시험 - 11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1차시험합격자발표 - 11월 14일(금) 오후2시(대학원게시판)

2차시험 - 11월 15일(토)에서 16일(일)

최종합격자발표 - 11월 21일(금) 오후 3시(대학원게시판)

대학단신

모의 국제연합 참가 대표위원 모집

23일까지 학과장실 비치 지원서 제출

21차 모의 유엔총회에 참가할 대표위원을 23일(금)까지 모집한다. '21세기 지역블록화와 유엔의 역할 변화'라는 주제로 9월 20일(토) 열리는 이번 총회의 참가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다. 국제관계에 관심있으며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언어 중 능통한 언어가 있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각 학교 해당 학과장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우리 학교 학생회관 2층의 모의 국제 연합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모의유엔은 9월 총회의제와 관련하여 영화제를 개최한다. 오늘(20일) 오후 4시에 인문과학관 310호에서 '플래툰'과 '파원 오브 원'을 상영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모의 국제연합(961-4458,015-914-0604)로 하면 된다.

말레이지아 문예진흥원장 우리 학교 방문

서울대학원, 용인 후복관에서 특강 진행

말레이지아 문예진흥원(Dewan Bahasadan Pustaka) 아지스 드라만(A. Aziz Deraman)원장이 지난 12일(월)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또한 방문에 이어 우리 학교 국제지역대학에서 '21세기를 향한 말레이어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13일(화) 오전 9시 30부터 1시간동안 용인배움터 후복관 소극장에서 '말레이지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특강을 했다. 또한 내년 10월에는 말레이지아 문예진흥원 측과 공동으로 '국제 말레이학 세미나'가 우리 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학복위, 용인생협 연극표 할인판매

20~40%, 30매 한정판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와 용인배움터 대학생활협동조합(생협)은 공동으로 연극표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연극은 '가꾸로 가는 리어'와 '레미제라블'로 '가꾸로 가는 리어'는 원래 가격보다 20% 할인된 8000원에, '레미제라블'은 40% 할인된 12000원에 판매한다.

단, 표는 30매로 한정판매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 학복위(4447), 용인 생협(4153)으로 하면 된다.

서울 연수원앞 주차장 임시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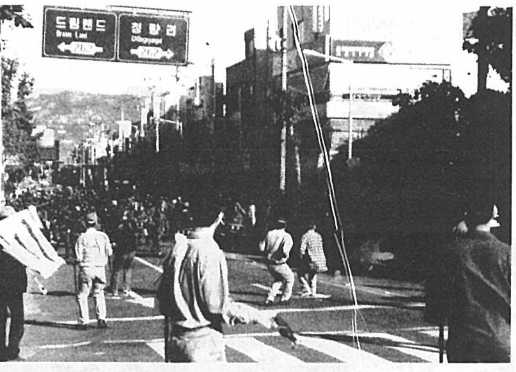
20·21일 대동제 관계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주관한 대동제 행사관계로 우리학교 연수원 앞 주차장이 임시 폐쇄된다

20일(화) 오전 8시부터 21일(수) 오후 10시까지 양일간 폐쇄되며 주차차량은 가능한 그 교수연수동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주간 일정표>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 대동제 (19~23)					
	• 2차 모의유엔 영화제	• 아웃사이더 14번째 정기공연(용인)		• 열번째 하모니아에이 외대합창단	
• Campus Life 사진전시회, 누리(용인) (19~23)					
		• 제5회 정기초청 연주회 서울 튜티 앙상블(고전음악 동아리메스터)(용인)	• 대동제(용인) (21~23)		



지난 16일(금)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애국외대 5월 투쟁선포식' 중 교문밖으로 진출 하려던!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던 전투경찰들이 대치하였다. 한편 이날 우리학교 학생중 참가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함철우 기자

㊀대 교육목적 – 재정비와 해설

2. 평화 : 국제적 한국인

1) 민주적 의식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어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들간의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 민주적 의식은 현대인의 생활원리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공동체 생활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형태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 공동체와의 관계설정의 성공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역사는 생활 공동체의 존재방식이 변화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개인과 공동체

사회구성원은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고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비로서 열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합의 도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공동체의 생명이자 기본전제가 된다.

(3)민주 시민의 덕목

공동체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이라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간절한 공동체 의식, 특히 민주적 의식이 요구된다. 민주적 의식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살며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 책임과 준법 정신, 그리고 참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2) 지도자의 인격

(1) 지도자의 인격

지도력은 직위가 높은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다. 오늘날 산업현장은 조직의 수직적 위계보다 역할의 수평적 능력을 더 중시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갈무리하는 능력과 책임감이 경영의 주동력으로 간주된다. 얼마만큼 자신의 과제를 창조적으로 수행하는가가 지도력의 열쇠이다.

(2) 교양과 자기개발의 지도자

지도자는 지도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 교육에 힘써야 한다. 넓고 풍부한 교양을 갖추면서 결코 오만하거나 뽐내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중용과 인화의 지도자

지도자는 수평적 사고를 하고 인화를 중시해야 한다. 수평적 친화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된다. 또한 관용과 아량으로 구성원들의 옳고 정당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3) 평화의 사절

넓은 세계로 향해, 마음을 열고 평화를 사랑하는 외대인은 5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의 사절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21세기 지구촌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1) 탈이데올로기와 개방의 시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지금까지의 빈약한 자원, 뒤떨어진 기술, 협소한 시장 등과 같은 경제적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보편적 인류애의 함양

평화의 세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 인류애라는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의 세계인은 이처럼 세계의 무대에서 정의롭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3) 세계를 호흡하는 관용성

국제화와 세계화의 시대는 각 민족의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포용을 하나의 규범적 원리로서 요청하므로 인류와 그 역사의 통일에 대한 비전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그 구현의 저해 요인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바로 잡는 힘을 발휘하는 실천적 예지의 소유를 의미하기에 인물 사회 과학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 서총련 출범식당시 연행된 학생을 만나

이 사람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모순된 사회를 바꾸는 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한 것뿐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잡아가는 김영삼 정권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화가난다"며 흥분한 모습을 역력히 드러낸 그는 얼마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려다 연행된 학생이다. 이 학생의 신변보장을 위해 사진과 이름은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석계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경이 들이 닥쳤고 지하철 창문을 깨고 최류액 등 진압 무기를 난사하는 등 학우들을 심하게 폭행하며 한 명씩 끌고 갔다. 이때 집회에 참가하려던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연행했으며 시민들까지 폭행하며 끌고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후 성신여대로 갔다가 성균관대로 가기위해 성균관대 뒷산을 넘어가서 후문이 보일때 쯤 갑자기 백골들이 몰려와서는 밤새도록 손전등을 이용해 산을 샅샅이 뒤졌다. 아마도 10일 새벽 1시쯤 많은 학우들이 붙잡혔으며 그때 나도 연행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행되는 도중 백골들이 그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부어대며 구타를 가했으며 경찰서에 가서는 자술서를 써서 내자 자술서와는 상관없이 경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한다. 또한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자신이 한 일과는 상관없이 쓰여진 진술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으며 삐삐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저장되있던 메세지까지 다 들으며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하였다.

현 시국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왜곡시켜가며 탄압하는 김영삼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대선자금 공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감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목 터져라 외쳤던 '김현철을 구속하라'라는 구호가 현실로 이루어져 기쁘다"며 학생들의 조그만 노력이 이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에 그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학생들도 이제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외대인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재권 기자

1997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연구인재를 널리 모집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1. 모집과정 - 석사·박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어문계열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아프리카어학과, 이태리어, 국어국문학, 포르투칼어, 동남·남아시아어학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북유럽어학과
인문계열 - 철학, 사학
사회계열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자연과학계열 -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공학계열 - 컴퓨터공학, 전자·제어공학

나. 박사학위과정

어문계열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아프리카어학,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계열 - 철학
지역학계열 -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계열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공학계열 - 컴퓨터공학

• 박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은 병역특례 지정 대학원입니다.
• 박사학위과정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는 '97학년도 후기는 선발을 하지 않음.

2.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ㄱ. 대학의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50만점에 3.00 이상인 자
ㄴ. 특전 : TOEFL, TOEIC 및 제2외국어에 능통한 자는 10% 가산점을 부여함(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

나. 박사학위과정
ㄱ. 국내·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석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학과와 동일한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대학에서 동일계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97년 8월 취득예정자로서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0이상인 자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3)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ㄴ. 특전 : 국내·외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각 학과 약간명
4. 원서교부 : '97년 5월 12일(월)부터 5월 20일(화)까지
5. 원서접수 : '97년 5월 15일(목)부터 5월 20일(화) 17시까지
6. 전형일시 : '97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
7.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 '97학년도 후기 대학원 일반전형은 실시 계획이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 961-4104, 962-7117)

각 대학원 석사, 연구과정, 최고세계경영자과정 모집

세계경영대학원(야간)(961-4109)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 세계지역연구학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illegible]
5. 전형일시 : [illegible]

• 국가 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전형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 우대함.
• 국가공무원 및 군경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1. 지원자격
가. 국회의원 및 정부, 군, 언론계, 법조계의 최고관리자
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의 임원
다. 기업체의 대표, 임원
라.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고위관리자
2. 모집인원 : 50명 내외
3. 수업 : 화,목요일 (18:30-21:40)
4. 원서교부 및 접수 : '97년 6월 9일(월)- 6월 27일(금)
5. 문의처 : 961-4109

교육대학원(야간)(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전공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업교육, 유아교육, 전자계산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 (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현직교사(시간강사 포함)의 자격 및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됨.
•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원서교부 : [illegible]
5. 원서접수 : [illegible]
6. 전형일시 : [illegible]

정책과학대학원(야간) (961-4093, 962-3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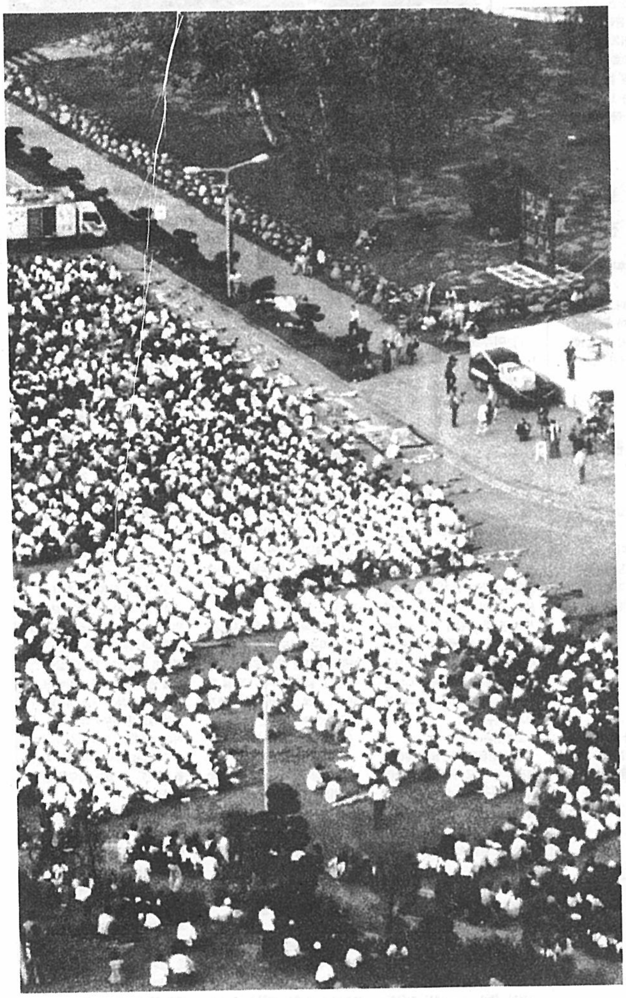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신문방송학과 - 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illegible]
5. 전형일시 : [illegible]
6.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4매, 졸업·성적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특 전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국가공무원(군·경 포함)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류재을 열사 장례식

광주의 아들 류열사여 항쟁의 들불로 부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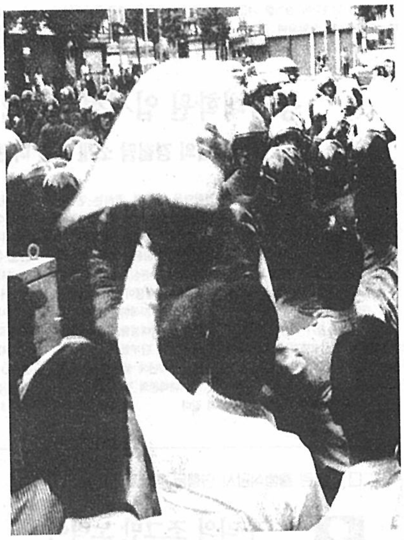
5월 18일(일). 광주에서는 고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 야당 총수 뿐만 아니라고 류재을 군의 장례식을위해 전국 각지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모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정부주관으로만 진행된 기념식만 볼 수 있었다. 장례식을 치루기 위한 학생은 기념식 방해세력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정부는 5·18 기념일 재정과 망월동 묘역 성역화 작업으로 광주항쟁의 의의를 기렸다고 하나, 열사의 장례식마저 살인적인 진압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현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편집자



5·18기념식 등의 관제행사가 준비되고 있을때 조선대에서는 7천명 정도의 시민과 학생이 모여 류열사 장례식을 치루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현 정권의 완전한 5·18진상규명 회피와 한보사태와 관련된 대선자금 비리등을 규탄하고 현 정권의 타도를 외쳤다.

'3분마다 오토바이가 대열을 지나간다. 부상된 학우들을 싣고서.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하나둘 생긴다' 16일부터 지금까지 6백여명의 학우가 중경상을 입었다. 전경들이 탄환과 속도가 비슷한 직격탄을 마구 쏘기 때문이다.
뼈를 함몰시키고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하여 시위 진압용으로는 무척 위험한 장비들이 학생들을 표적으로 조선대로 운반되고 있다.



드디어 시민들이 나섰다. 한총련이 전남도청에서 류열사의 노제를 치루려 하자 전투경찰이 조선대를 봉쇄해 버렸다. 이에 시민들이 가세, 학생들에게만 맡겨뒀던 전경들과의 싸움에 합세했다. 일방적인 정권의 탄압이 이제는 학생과 시민의 구별을 필요없게 하고 있다. 전민항쟁의 불길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인가.

류재을 열사를 숨지게 한 현 정권의 살인적 폭압. 최근 쇠도리깨, 쌍절곤 등을 동원한 전경의 모습에서 설명된다.

도청을 향한 운구의 행렬과 이를 막으려는 전경과 대치 중 조선대앞은 무자비한 폭력과 최루탄 세례에 대응하려는 학생들의 화염병. 이를 재투척하는 전경으로 인해 '불바다'가 됐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의 폭력으로 산화해야만 했던 학우의 장례식도 못치르게 하는 것은.

입는것 하나부터!

차라리벗겠습니다

성조기를 그려넣은 옷이
USA가 큼직하게 박힌 옷이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 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승인없인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5·18광주 학살도 미국의 묵인없인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은 전두환의 만행을 방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땅의 참된 민주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금이 언니를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그 범인 미군은 편안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치에서 경제까지 모두 간섭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 정신, 문화까지 빼앗기시렵니까?

성조기 옷을 입 … 벗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